

vol.1

비폭력평화물결 대표
박성웅

Data 데이터
비주얼라이징 피스

플랜P



PEOPLE

계간 평화저널
2020년 가을 창간호

플랜P

2020년 5월 15일 등록 종로, 바00221
2020년 9월 15일 발행 통권 제1호 [People]

발행인 김복기
편집장 이은주
편집위원 김가연·김상덕·김성한·김수연·김유승·박속영
디자인 더디앤씨 | www.thednc.co.kr
인쇄 (주)타라티피에스

발행처 평화저널
출판등록 2020. 5. 12. 제2020-000052호
주소 (03140)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428 낙원상가 5층 500호 공익경영센터 내
이메일 pjplanp@gmail.com
홈페이지 www.peacejournal.co.kr
페이스북 facebook.com/PJPlanP

ISSN 2733-9254
ISBN 979-11-971531-0-5 03300
값 12,000원

목차

004

Overview **펴내며**

첫 발을 내딛는 <평화저널 플랜P>
창간호 'People' 길안내

012

Focus on **특집**

[피워드] “평화는 사람이다”
[피스 프리즘] 코로나19 시대
× 평화교육 활동

032

Data **데이터**

[비주얼라이징 피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지도

038

Interview **만남**

[인물] 박성용
[단체] 여순항쟁 서울유족협의회

056

Issue **이슈**

평화로운 지역사회,
회복적 경찰 활동이
힘을 보냅니다

058

Learning **배움**

적(敵)도 사람이다
대형 재난 시대의 평화운동

066

Voice **기고**

놀이가 건강하면 평화가 온다
사람의 얼굴을 되살리는 평화 저널리즘

076

Culture **문화**

[영화] 타이카 와이티티 <조조 래빗>
[음악] 길가는밴드 <언제나, 전부>
[책] 수진 손택 《타인의 고통》

090

Information **소식**

091

Notice **공지**

<평화저널 플랜P>가 알립니다

092

Epilogue **맺으며**

창간을 축하해요!
편집 후기

첫발을 내딛는 평화저널 플랜P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라는 에이브러햄 머스티¹⁾Abraham Musty, 1885-1967의 담대한 비전은 평화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평화에는 소극적 평화가 있고 적극적 평화가 있는데, 우리는 소극적인 평화를 넘어 적극적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요한 갈통²⁾Johan Galtung, 1930~의 평화론이 널리 알려지면서 평화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관심이 점점 커져왔다. ‘평화’는 온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소중한 가치라서 그런지, 새삼 “우리는 모두 하나”임을 알려주며 새로운 모습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 어느 시대보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큰 틀로서 평화는 새로운 얼굴을 단장하고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어떻게 하면 거대한 담론으로 여겨지고 소수의 힘 있는 이들과만 좌지우지하는 듯 보이는 평화라는 주제를, 일상에서 늘 마주치며 이야기하게 되는 ‘소소한 문제’로, 모든 이들이 향유하는 평화로 고민하게 할 것인가를 질문하면서 <평화저널 플랜P>를 만들어보겠다고 나선 지 1년이 되었다. 그 사이, 온 인류는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안녕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가 절실한 지금, 평화의 참모습을 되새겨보아야 할 뿐 아니라 평화활동가, 평화운동가, 평화단체, 평화학, 평화 저널리즘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고 본다.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1년 넘게 매달 한두 차례 가진 편집회의는 많은 배움과 성장의 시간을 갖게 했고, 평화에 관한 질문을 다시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평화란 무엇인가? 진정한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어떤 모습일까? 평화를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전쟁이나 갈등 상황을 떠올리곤 하는 상황에서 저마다 알고 있는 평화는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올해 6.25 전쟁 70주년을 맞은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과연 평화란 무엇일까? 폭력이 답이 아니라면, 과연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평화활동가들이 평화를 세운다(peacebuilding, 평화를 만든다(peacekeeping), 평화를 수호한다

peacekeeping이라고 말할 때, 과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폭력과 절망의 사회, 경쟁 사회, 벼랑 끝에 선 사회로 느껴지는 일상 속에서 평화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말해야 하는가? 등 수많은 질문에 대해 논의해 왔다. '평화'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전쟁의 반대말이면서 전쟁 없는 상태를 떠올린다고 한다. 무엇보다 한반도에 사는 우리는 '평화'라는 말을 들으면 자동으로 전쟁 없는 상태를 먼저 떠올리거나, 남북통일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고 한다. '힘의 우위'로 이뤄내는 평화를 열심히 배워왔기에 평화를 이루려면

무엇보다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전쟁의 폐허 위에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열심히 힘을 기르며 살아왔다. 안타깝게도 힘의 우위로 얻는 평화가 틀린 논리는 아니지만, 이러한 평화는 여전히 상대적인 개념이자 소극적인 평화에 머물러 있도록 만든다.

어떤 사람들은 국가나 세계평화 같은 거시적 차원의 평화를 위해 할 일이 없다고 여기므로, 마음의 평화나 종교적이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평화를 추구하기도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사는 요즘에는 예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생태와 환경의 평화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범주의 평화가 있지만, <평화저널 플랜P> 창간호에서는 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평화'로서 '사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평화는 사람이며, 사람이 곧 평화임"을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평화의 가장 중요한 얼굴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간호에서는 그 밖의 모든 것을 뒤로 물리고, 평화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모습과 독특한 색깔로 평화를 담아내는 평화단체들을 소개하려고 했다.

거듭
생각해 봐도,
평화는 사람에 의해
시작되고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며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궁극의
가치임이 틀림없다.

그러니 결국
평화는 사람이다.

거듭 생각해 봐도, 평화는 사람에 의해 시작되고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며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궁극의 가
치임이 틀림없다. 그러니 결국 평화는 사람이다.

그래야 한다. 아닌 게 아니라 ‘평화’를 말할 때 우리는 혼
히 레프 톨스토이나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을 떠올
린다. 또한, 함석헌 선생이나 넬슨 만델라를 떠올리기도
한다. 그들이 평화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위인이나 유명인을 떠올리지 않아도 사실 우리
주변에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비록 역사에 이름을 길이 남기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일상에서 평화를 일궈내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평화저널 플랜P〉는 여러 방면에서 저마다의 목소리로
평화를 이야기하는 평화활동가, 평화건설자, 평화
지킴이, 그리고 여러 평화단체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네트워킹하고, 적극적인 평화 담론을 이끌어내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 〈평화저널 플랜P〉는 각자도생의 길을
걸어온 평화활동가는 물론 평화단체들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서로를 연결하는 통로이자 도구로서
기꺼이 쓰이고자 한다.

또,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평화냐? 폭력이나?”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 제3의 방법들과 대안을
찾아내고 이를 뒷받침하는 ‘평화학’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를
자처하는 정치인, 사회 지도자, 유명 인사들이 위에서
아래로 흘려보내는 평화 담론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은
지양하려고 한다. 그보다는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
가까이, 시민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평화단체들을
찾아내어 그 단체들을 재조명하며 주의를 집중하는,
시민 평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모두가 누리는
평화를 이야기할 것이다.

“평화는 그냥 오지 않는다.”라고 누군가가 말했듯이,
정말이지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그냥 오지 않는다.
세계 평화,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일상 속에서 누리는
평화조차 그냥 오지 않는다. 언제나 평화는 눈물을
흘리며 평화의 씨를 심는 사람과 함께 오게 마련이다.
그러기에 평화는 가장 먼저 평화에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고, 참여하는 자들을 통해 온다. 그렇게 오는
평화를 다함께 누리기 위해 평화의 여정으로 독자를
초청한다. 평화는 사람이기에…….

2020년 가을

발행인 김복기

창간호 PEOPLE



길안내

글 이은주

〈평화저널 플랜P〉 초대 편집장. 사회학·정치학 공부를 마치며 인문사회과학 출판사에 들어가 3년 반가량 편집자로 일했다. '마음비추기 피정'과 '삶을 변혁시키는 평화훈련 AVP'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2012년 '비폭력평화물결'에서 전업 평화 활동가 생활을 시작하였다. 2014년에 《평화의 바람이 분다》(박성웅), 《회복적 생활교육을 만나다》(박숙영)를 기획·편집하였고 2019년 끝자락 겨울에 〈평화저널〉 편집위원들을 만났다. 현재는 '평화 감수성 교육'과 '회복적 정의 실현' 활동과 함께 '와이즈 서클'이란 이름으로 '협력' '소통' '공동의 지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워크숍 및 강의를 기획·진행하고 있다.

평화 平和

사람 PEOPLE

'평화'의 반대말로 저는 '폭력'을 꼽고자 합니다. '暴力'이란 한자어 안에는 '지나치고 과하며 사나운 힘'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폭' 자를 구성하고 있는 한문을 살펴보면 '쌀을 햇볕에 널어 말릴 만큼 매섭게 내리쬐는 해'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만나는 '폭염'에도 우리는 '폭'을 씁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끔찍한 폭염처럼, 사람들 간에 우리는 엄청나게 매서운 에너지의 폭력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平和'라는 한자어도 살펴볼까요? 여기에는 '사람'을 뜻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평평할 평'은 양쪽 무게가 비슷할 때의 저울 모양을 본떴고, '화목할 화'는 '벼 화'에 '입 구'가 붙어 사람들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는 모양을 가리킨다는 글자 해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삶을 갈망하고 또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이들은, 따라서 자신을 포함한 주변 이들이 골고루 먹을 것을 얻고 있는지, 사랑하고 존중하는 에너지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가는지, 늘 '힘'에 관해 민감합니다. 이들이 모여 '평화저널'을 만드니, 관심 갖고 질문하며 살펴야 할 곳이 참 많습니다.

계간 〈평화저널 플랜P〉의 창간호 키워드는 '사람people'입니다. "평화는, 곧 사람이다." 어떤 명분이나 상황에서도 사람을 먼저 위하는 평화, 체제이고 제도이기 전에 결국 사람으로부터 형성되는 평화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평화저널 플랜P〉의 편집위원들은 이 계간지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해 나가려는 평화의 방향성을 강렬하게 담고자 애썼습니다. 꼭지 전체를 '평화-사람'이라는 연결 지점을 발견해 가는 내용으로 구성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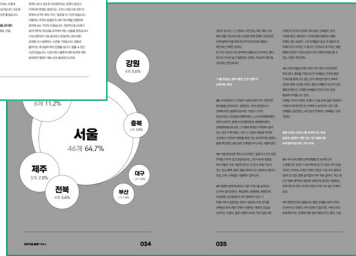
Interview



Focus on



Data



해당 호의 키워드를 주목해보는 [Focus on] ‘피워드 P-word’에서는, 왜 우리는 “Peace is People”이라 말하려는지, ‘사람’으로 표현하는 우리가 바라는 ‘평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Focus on] ‘피스 프리즘’에서는 지난 7월 29일에 ‘코로나19 시대와 평화교육 활동’을 주제로 진행한 포럼의 기록을 담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해주신 패널 다섯 분의 희망찬 목소리를 통해 현재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도 주목하고 지켜야 하는 평화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Data] ‘비주얼라이징 피스’에서는, 창간호를 맞아 특별히 국내에 등록된 평화단체와 기관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시각화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몇 회에 걸쳐, 아직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평화단체 및 개인 활동가들과 국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평화의 길을 함께 걷는 동료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

인하고, 마음으로 연결돼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평화에 관련한 유의미한 연구 자료들을 아주 간략하게 시각화하여 전달하는 [Data] ‘리서치 포 피스’는 다음 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Interview]에서는 다양한 평화단체와 평화활동가를 직접 만나봅니다. 그들이 지닌 보물 같은 자원들을 평화의 눈으로 발견해내고, 특히 지금의 자신들이 있기까지 영향 받은 인물이나 사상, 환경 등을 이야기 듣습니다. 창간호 ‘인물’에서는 한국에서의 비폭력 실천과 훈련을 위해 헌신해 온 ‘비폭력평화물결’ 박성용 대표님을 직접 만나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단체’에서는 72년째 묻혀 있는 여순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힘쓰고 있는 서울유족연합회를 만나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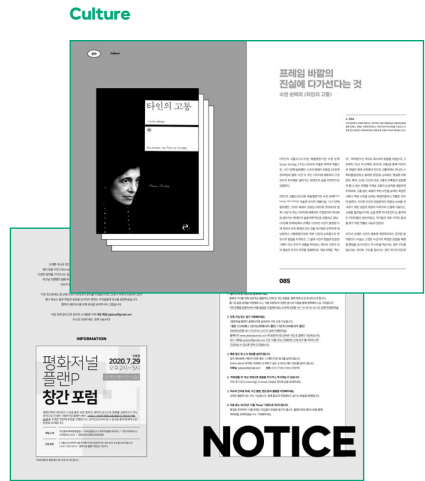
[Issue]에서는 올해부터 경찰청이 주도하여 본격 시행



Issue



Learning



Culture

Information

Voice

되고 있는 ‘회복적 경찰 활동’을 다룹니다.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된 채 처벌과 형량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은 일에 관하여 연결과 돌봄,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전국 각지의 경찰관들과 대화 진행자들이 함께 노력하는, 가슴 뛰는 그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Learning]에는 평화를 삶의 기술로 쓰고자 시도하는 두 글을 실었습니다. ‘적’을 만났을 때 시도해볼 수 있는 마음 챙김과 대화법을 알아보며, 재난 상황일 때 겪는 집단 트라우마 앞에서 평화활동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Voice]에서는 평화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창간호에서는 평화를 사랑하는 한남대 명예교수 김조년님과 ‘피스모모’ 평화저널리즘 팀장 김가연님의 ‘평화×사람’에 관한 글을 실었습니다.

[Culture]에서는 평화에 말을 건네는 다양한 예술 분야를 만나봅니다. 영화 <조조래빗>, 음반 <언제나, 전부>를 낸 ‘길가는밴드’, 수전 손택의 《타인의 고통》을 통하여 다채로운 자극과 풍성한 질문거리를 던집니다.

[Information]에서는 평화의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단체들의 새 소식과 정보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창간호에서는 앞으로의 계획을 알립니다.) [Notice]를 통해 회원 단체는 물론 일반 독자와도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창간호에서는 첫 시작이다 보니 알려드릴 것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을 이제 평화의 첫 향연으로 초대합니다. 다양한 지점에서 여러분과 평화의 공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평화
PEACE는
사람
PEOPLE
이다

글 김상덕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실장,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유튜브 채널 <어쩌다 쌀롱> 진행자. 공공신학, 평화학, 미디어연구 등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한국 및 동아시아의 갈등의 문제들을 문화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평화와 화해를 위한 종교의 공적 역할과 다양한 창조적 실천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평화는 모호하고 폭력은 분명하다

평화란 무엇일까? 진정한 평화가 현실 속에 가능한 일인가? 평화란 무지개 너머에 존재하는 막연하고 이상적인 개념과도 같다. 평화에 대한 정의도 구체적인 설명도 쉽지 않다. 누군가 당신에게 가장 최근에 목격한 평화에 대해 묻는다면 어떤 모습이 떠올라?
'비둘기? 한적함? 도대체 평화가 뭐지?'
반면에, 폭력은 우리 주변에 쉽게 발견되고 구체적이다. 우리의 내면에서, 가족과 이웃에서 발생하는 폭력들부터 언론을 통해 목격되는 수많은 폭력의 이야기들이 쉽게 떠오른다. 어쩌면 평화에 대한 갈망이란 폭력에 대한 저항과 비례하는 것일지 모른다. 과거 종교는 평화의 당위와 실천에 대해 주로 관념적인 논의와 개인적 실천에 대해 강조했다. 근대 이후, 특별히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이후부터 시작된 근대 평화학과 평화운동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시작을 폭력에서부터 찾는다. 폭력이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평화를 깨뜨리며 사람과 사회 그리고 자연에 해를 가한다. 특별히 '폭력의 부재'로서의 '소극적 평화'가 아닌 모든 폭력의 잠재적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적극적 평화'를 추구한다. 이런 맥락에서, 평화란 폭력을 줄여가는 과정으로 이해되며, 폭력에 대한 이해는 물리적 폭력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문화적 영역으로 확장된다. 평화에 대한 이해는 모호하고 다양하다. 이찬수는 <평화와 평화들>(모시는 사람들, 2016)이란 책에서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개념으로서의 '평화'(대문자 Peace)와 개별적이고 실천적인 이해로서의 '평화'(소문자 peace)를 구분한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지만 개인의 평화의 이해와 실천 방식은 다양하다는 것이다. 다양하다는 말은 상이하다는 뜻을 내포하는데,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이 '다름'에서 비롯되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평화에 대한 인식의 다름이어서도 말이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이제는 일종의 클리셰가 되어버린 이 표현은 진부할 수는

있으나 그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름'과 '그름'의 구분의 필요성이 여전히 강한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다름'을 쉽사리 포용하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혐오와 폭력적 갈등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발견한다. 성과 성역할의 인식의 간극이 벌어지고, 세대 간의 차이는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어느 사회나 존재하던 정치적 진보와 보수는 극단적 형태의 표현만이 광장에 난무하다. 성숙한 대화와 토론으로서의 광장은 어느새 서로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기 위한 화풀이 장소로 전락했다.
'나와 조금 다름 뿐, 그들도 존엄한 사람이야.'
초등학생들은 알지만 어른이 되면 잊어버린다. 사람됨보다 더 현실적인 이유들을 걱정한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범죄율이 오를 것을 두려워한다. 그렇다고 분명한 근거나 상관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기인하여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느끼는 대상에게 갖는 부정적이고 폭력적 감정을 일컬어 '혐오'라고 한다. 장애인, 외국인, 다문화, 탈북민, 성소수자, 난민 등에 이르러 '혐오'와 '배제'는 오늘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윤리적 이슈가 되었다. 지난해 화제를 모았던 KBS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서 아직도 잊히지 않는 장면이 있다. 주인공 동백이^{공효진}가 첫사랑이었던 강종렬^{김지석}과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회상 장면이었다. 동백이는 종렬과 결혼을 약속하고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지만, 종렬의 어머니는 동백이가 아들의 결혼상대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촉망받는 야구선수인 '아들'^{홍예}에게는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소위 '현모양처'가 필요한데, 동백이는 부모도 없고 어딘가 어두워 보이는 구석이 있어 싫다고 한다. 사실 동백이는 친부모에게 한번 버려진 후, 양부모에게서도 파양되어 다시 버려진다. 동백이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동백이가 부모가 없고 그래서인지 왠지 어두워 보인다는 이유로 버려진다. 그런 과거를 가진 동백이를 향해 종렬의

❶ 동백이를 있는 그대로 포용한 사례를 황용식(로맨스)과 친모(모성애)를 중심으로 그려낸 점은 아쉬운 자점이기도 하다. 동백이가 맞서 싸우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도리어 '전통적 가족' 바깥에 위치한 사람들에게 더 빈번히 일어날지도 모른다.

표현을 쓰는 경우도 드물다. 이 어색한 대사는 작가의 의도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는 <동백꽃 필 무렵>의 전체 주제와도 일맥상통한다. 동백이가 오산에 내려가 '카멜리아'라는 식당을 차렸을 때, 그녀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외지인, 미혼부, 술집여자라 같은 사회적 편견들이었다. 누구도 그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않았다. 오산의 직진남, 황용식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드라마는 동백이가 사회적 편견과 싸우는 과정 속에서 사랑, 가족애, 마을 주민들과의 화해를 담고 있다.❶

단절의 역사와 모호한 혐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혐오란 나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에 기인하여 자신보다 열등한 존재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심리적 활동을 말한다. 혐오에는 단계가 있다. 두려움과 분노가 집단화되고 구체화되면 끔찍한 폭력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폭력적 갈등의 원인도 혐오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나와 다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는 왜 그렇게 이질적인 것에 대해 거부반응을 일으키게 된 것일까?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알지만, 해결의 실마리 중 하나는 한국 사회가 경험한 '분단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6·25전쟁과 분단의 역사는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갈라놓았다. 수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다쳤고 가족을 잃고 고아로 살아가야 했다. 실형민들은 일평생 가족과 생이별을 한 채 기다리거나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다.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를 향해

엄마가 말한다.
 “난 네가 싫어. 그냥 네가
 병균덩어리 같아.”
 어떤 사람이 상대방을
 앞에 두고 '병균' 취급을
 할까? 평소에 사람을
 향해 '병균덩어리' 같다는

총부리를 거는 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군사적 위협과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 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다. 막대한 예산이 군사 및 안보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작전지휘권은 아직도 한미연합사령부에 예속되어 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나라의 운명이 아직도 우리 스스로에게 없다는 사실은 6·25전쟁 이후 분단된 조국의 설움이다. 이를 빌미로 미국은 우리 정부에 상당한 금액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동맹은 처음부터 동등하지 않았다. 전쟁 후 폐허가 된 국가를 일으키는 데 큰 도움이 된 우방국이었지만, 많은 경우 미국의 편의를 따라야 했던 힘없는 국가의 설움도 있었다. 무엇보다 남과 북의 문제를 '우리끼리'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고, '북미' 대화의 중재자 역할 정도의 제한적 현실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물리적이거나 외형적인 어려움들에 불과하다. 분단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 내면에도 영향을 끼쳤다. 마치 트라우마와 같이 말이다. 소위 '분단 트라우마'는 전쟁과 분단의 경험이 과거에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별히 우리의 의식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적어도 내게는 '국경'^{border}에 대한 개념이 그렇다.

1) 내 안의 분단 트라우마를 마주하다

서른 살 즈음 중국 간도 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다. 그때 방문한 곳 중 하나가 중국 지린성^{吉林省} 남단에 위치한 훈춘^{珲春}이라는 도시다. 조선족 자치주에 속한 이곳은 중국, 북한, 러시아의 세 국경이 모여 있는 접경 지역이자 한족, 조선족, 만주족 및 다양한 소수민족과 북한과 러시아에서 넘어온 사람들로 다양한 문화와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다. 방천 전망대는 이 세 나라의 국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관광지다. 그래서 충격이었다.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 유일한 국경이란 서로 총을 겨누며 경계해야 하는 군사적 긴장의 장소이어야 했다. 그런데



훈춘에서 만난 국경은 질서와 평온한 일상의 공간, 아니 관광지 중 하나였다. 더구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지 않은가! 그날의 평화로움이 내게는 30년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어지는 해체의 경험이었다. 그렇게 나는 분단의 어그러진 기억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것은 분명 경계를 넘어서는 독특한 경험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아니다. 이 왜곡된 기억은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일까? 한국의 거의 모든 남자들이 군대에 간다. 전 세계 어디에 이 정도로 집단적이고 동일한 문화적 형성의 경험이 있을까? 한국의 '군사문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지하게 이뤄지고 더 큰 조명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생각해보라. 한국의 남성이 나처럼 군대에서 '국경'의 기억을 갖게 되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적'과

'허가된 살인'을 교육받고, 군대 안에서는 허가된 통제와 폭력의 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 문화적 기억은 군을 제대할 때 같이 제대하지 못하고 사회로 가져온다. 그곳은 더 이상 군대가 아니지만, 그들은 가정에서, 회사에서, 여성에게,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군사문화'를 전수한다.

2) 배제와 차별, 혐오의 문화

분단은 남과 북을 지리적으로 가르고 서로를 적(원수)으로 만들어놓았다.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빨갱이', '레드 콤플렉스'와 같은 혐오 집단이 생겨났으며, '반공'의 기치 아래 자행된 잔인한 폭력의 상흔이 역사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남과 북'은 곧 '선과 악'처럼 모든 것을 이분법적 나누었고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하고 배제하고 차별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분단 트라우마’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새로운 집단 정체성과 혐오의 대상을 찾는 데 전용되기도 한다. 특히 ‘종북 게이’와 같은 표현은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만 발견되는 ‘단절의 상처’이다. 나와 다름을 이해하거나 포용하기보다 그 차이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분노를 쏟아내는 일종의 ‘희생양’이나 ‘마녀사냥’ 문화가 자리한다. 특히 오늘날 청년 실업이나 여성 혐오 범죄 등의 문제는 여러 갈래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구조적 문제이지만, 그것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다. 자신이 처한 어려움이 나의 해결 능력보다 크다고 느낄 때 우리는 종종 좌절하고 그 분노와 책임을 전가할 희생양을 찾게 된다. 최근 혐오와 차별의 문제가 사회적인 현상으로 표출되는 사례들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는 일종의 병리학적 증상symptom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평화는 폭력의 환부를 도려내는 것과 평화의 근력을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단절’이 아니라 ‘소통’과 ‘연결’의 시대가 되었다. 이질적인 집단들 간의 대화가 끊기는 순간, 갈등의 정도는 급속도로 악화된다. ‘다름’이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다양성의 일부이며 공존과 상생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분단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집합기억collective memory 이론에 따르면, 기억은 한 집단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전쟁과 가난, 분단과 독재 등의 집합기억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미셀 푸코는 한 사회의 고정된 방식의 편견과 선입견이 통제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에는 반대하면서, 사회적 고정관념으로서

② 프랑스 사회학자인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이론으로, 그는 기억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③ 상상과 기억은 언뜻 미래와 과거를 다루는 다른 이야기 같지만, 결국 본다는 의미에서 같은 행위이다.

‘대중기억’popular memory과 이에 맞서 ‘대항기억’counter memory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 말은 우리의 ‘기억함’remembering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재구성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즉, 우리는 분단을 넘어서는 새로운 상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상상(기억)은 나의 이야기일 때 큰 힘을 발휘한다.

스펙터클보다 우리의 이야기가 필요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역사적 만남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모두가 놀랐고 감격했다. 이전까지 냉랭했던 남북 관계가 2018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이렇게 급속도로 달라질 수 있다니,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 적절해 보였다. 어안이 병병했다. 그도 그럴 것이 통일 및 남북 관계에 대해서 국민의 대다수는 ‘관객’audience이거나 ‘구경꾼’(spectator)인 경우가 많다. 특히 북한 관련 정보나 외교 정책 등은 소위 ‘그들만의 리그’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통제’된 정보만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기 때문이다.

판문점의 파란색 도보다리를 남북의 정상이 함께 걷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 마치 영화 속 ‘상상’처럼 느껴진 것은 나뿐일까? 국내외 언론들이 생중계로 보여주고 있음에도 ‘보고도 믿기 힘들’ 화면 속 현실은 일종의 스펙터클spectacle이다. ‘스펙터클’이란 매우 인상적인 ‘장관’이나 ‘구경거리’를 뜻한다. 도보다리 위 두 정상의 만남이 마치 한편의 영화 속 장면처럼 느껴졌던 이유는 그 순간이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일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구경거리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나의 (조금은 까칠한) 시선은 통일 및 한반도 평화의 이슈가 내 삶의 영역과는 괴리된 또 다른 세상의 이야기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사실 남북 정상회담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노력들이 물밑에서 이뤄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감춰지고 알려지지 않은 세상의 이야기다. 판문점 회담이라는 역사적 순간이 미디어를 통해 목격되고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과정’은 알지 못한

채 '결론'만 구경하게 된다. 이 스펙터클이 나의 삶에 의미로 다가오려면 나에게 충분한 공감을 주어야 한다. 어떤 영화는 웅장한 스케일에 화려한 시각효과를 자랑해도 관객에게 충분한 공감을 일으키지 못하는 반면, 어떤 영화는 소박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커다란 감동을 주기도 한다. 바로 이야기의 힘이다. 영화 속 이야기가 나의 삶에 의미로 다가올 때 관객은 '구경꾼'에서 '참여자'가 된다. 2020년 한반도는 그리고 세계는 여러 의미로 역사적 전환기에 놓여 있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특히 남북한 두 정상 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는 사진은 'peace together'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상징이 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즉, 평화에 대한 거대 담론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영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평화의 물은 아래에서 위로도 흐른다

판문점 정상회담이 정부 및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면, 2019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그 한계를 보여준 사례이다. 오랫동안 실질적인 대립 및 이해 당사자였던 북미 정상이 실제로 만난다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의 역사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임기 후에 대북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그의 외교적 노력이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켰다는 이야기는 익히 알려진 사례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미 두 정상의 만남에 큰 기대를 했던 것도 당연하다. 두 국가수반이 얼굴을 맞대지 말아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실제로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을 때의 놀라움과 흥분은 상당했다. 국내에서는 평창올림픽 이후로 발전되어 온 한반도 평화의 무드가 드디어 결실을 맺을지도 모른다는 낙관론이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양국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남과 북의 오랜 숙원사업인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협정이 이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기대와는 달랐다. 오랫동안 적대적 국가였던 양국 간의 조율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팽팽한 긴장 속에서 진행되었다. 누구도 먼저 양보하거나 손해 볼 수 없는 게임, 국제무대란 신뢰나 양보는 능력이 아니라 무능으로 여겨지게 마련이다. 특히,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확화'^{CVID}의 요구는 끝내 관철되지 못했다.

전통적으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가 정상 및 외교관을 통한 공식적 외교를 가리켜 '트랙 1 외교'^{Track One Diplomacy}로 지칭한다. 반면, 민간 및 NGO, 다국적 기업 등의 비공식적 외교 통로를 통틀어서 '트랙 2 외교'^{Track Two Diplomacy}로 분류해 왔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정부 주도의 공식적 외교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탑-다운^{top-down} 방식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bottom-up} 평화의 노력들이 꾸준히 이뤄져야만 가능하다. 아무리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마침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평화는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단지 '전쟁의 부재'가 아닌 '모든 폭력과 갈등의 잠재적 원인'들을 줄여가는 과정으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현실에 대한 인식과 생활 방식 등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다. 법과 구조만으로도 한계가 있다. 그 법 자체가 사람의 인식과 행위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식민통치와 독재정권으로부터 마침내 자유를 얻고 자유민주주의 제도로 국가를 재건하고자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독재자가 심판을 받고 정의가 이뤄졌으며 새로운 세상이 열렸지만, 그 사회 구성원과 시민의식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 정치적 공백은 다시 과거의 권력이나 심지어 더 악한 세력에 넘어가는 경우들도 발견된다. 결국은 사람이다. 평화의 이해와 인식의 문제도, 폭력에 대한 감수성과 폭력을 줄여가는 주체도, 더 나은 세상을

● 비슷한 예를 들면, SF영화의 고전으로 손꼽히는 <블레이드 러너>(1982)의 배경은 2019년이고, 한국에서는 <서기 2019년>이란 제목으로 번안되어 소개되기도 했다. 블레이드 러너는 인류의 유전자를 이용하여 만든 복제인간 '레플리칸트'를 통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되묻는 영화이다.

마련이다. 그래서 평화는 사람이 중심이고, 관계가 중심이며, 피해자가 중심이어야 한다. '당신 주변의 평화는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이다. 나와 내 이웃이 행복하면 그것이 바로 평화이다. 누군가 폭력이나 위협에 노출된 채 소외와 차별 속에서 살아가는다면, 아직 평화의 길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정부나 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없다. 평화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여야 한다. 2020년 오늘 우리에게 평화는 여전히 모호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폭력은 우리의 일상에 또렷하게 목격된다.

누군가에게 미래였던 2020년은

혹시 만화영화 <2020년 우주의 원더키디>(KBS, 1989)를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필자와 같은 시대를 살아온 'X세대'(요즘도 이런 말을 쓰는지는 모르겠다)일지도 모른다. 1989년에 방송된 이 만화영화는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기념하며 KBS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야심차게 제작한 작품이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미래 사회에는 인구 증가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인류가 지구에서 살기 어려워짐에 따라 새로운 터전을 찾아 우주로 여행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가 되면 날아다니는 자동차는 물론, 자유로운 우주여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던 만화적 상상이 담겨 있다.●

갑자기 웬 만화영화 타령인가 싶겠지만, 30년 전 사회에서는 '2020'이란 숫자가 머나먼 미래 사회를 상징하는 연도였다는 점을 상기해보고자 한다. 그 먼

상상하며 '단절'의 기억을 절연하게 끊어내고 '소통'의 기억을 선택하고 살아내는 것도 사람이다. 평화는 결국 사람이며 사람이어야 한다. 평화를 관념이나 당위, 제도나 정책 등으로 접근할 때 우리는 본질을 놓치게

미래가 2020년이다. 그 미래를 우리가 오늘로 살고 있다. 그 당시 상상했던 날아다니는 자동차는 아직 없지만, 그때의 상상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기술의 발전을 경험하고 있다. 분명 30년 전보다 세상은 바뀌었지만 크게 바뀌지 않은 것들도 있다. 여전히 전쟁과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미국 내 인종차별은 과거의 일로만 생각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폭력과 차별과 혐오의 역사들이 다시금 그 흉측한 얼굴을 들이밀고 있다. 세계 평화를 노래하지만 매년 각국마다 군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식량 생산량이 세계 인구를 먹이고도 남지만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 또, 병에 걸려 죽거나 평생 제대로 된 환경에서 교육다운 교육도 받지 못한 채 노동에 치여 사는 어린이들도 있다. 심각한 환경오염과 기후 변화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최악의 예측 시나리오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30년 전의 누군가가 타임머신을 타고 2020년 미래로 온다면, 그에게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설마 아직까지 남과 북의 종전 및 평화협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상했을까? 광주항쟁 이후 40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책임자에 대한 진상 조사와 진정한 사죄 그리고 용서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믿을 수 있을까? 그는 과연 광화문에서 '종북 게이'를 외치며 혐오의 표현을 서슴지 않는 오늘의 광장을 상상이나 했을까?

평화의 얼굴은 우리 주변에 있다

2020년은 여러모로 역사적인 해로 기억될 것이다. '코로나 19'(COVID-19)라는 초유의 팬데믹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고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도쿄올림픽도 1년 연기되었는데, 이는 124년 올림픽 역사 중 전쟁이 아닌 이유로는 취소 혹은 연기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전염병의 세계 대유행은 환경 및 기후 문제와의 관계를 돌아보게 한다. 비슷한 이유일지 모르겠으나 국내에선 50일 이상 비가 내려 최장(最長)의 장마를 기록했으며, 이로 인하여 중부 지역에 심각한

결국은 사람이다
평화의 이해와 인식의 문제도,
폭력에 대한 감수성과 폭력을
줄여가는 주체도,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며
‘단절’의 기억을 절연하게 끊어내고
‘소통’의 기억을 선택하고
살아내는 것도 사람이다

평화는 결국 사람이며
사람이어야 한다

비 피해를 입기도 했다. 미래의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2020년의 한국 사회는 과거의 역사를 정리하고
기억하는 사회로 접어들었다. 근현대사의 아픔과
상처들이 너무도 많지만 그것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따라 앞으로의 한국 사회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그
모습에 평화를 상상하려면, 우리는 사람에 집중해야
한다. 역사적 갈등의 주체는 사람이다. 한국 사회는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바로 주변의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한다. 관념이나 정치색이 아니라, 피해자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그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가해자의 회복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평화를 말하고
실천하는 활동가들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 일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더더욱 자주 평화를 상상하고 목격할 수
있어야 한다. 판문점 도보다리의 환상적 스펙터클도
좋지만, 우리 모두는 관객이 아니라 평화의 부분이다.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에서 평화는 모호하고 폭력은
뚜렷하지만,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가 된다면 폭력은
줄어들고 평화는 조금 더 뚜렷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이다.

평화저널 플랜P 창간 포럼

코로나19
시대
×
평화교육
활동

일시 2020년 7월 29일(수) 오후 2시~5시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교육장 '주다'

패널 박성웅(비폭력평화물결), 전세현(피스모모), 서정기(에듀피스),

박숙영(좋은교사 회복적생활교육연구소), 정용진(한국평화교육훈련원)

준비 및 진행 이은주(사회), 김복기, 김수연, 김가연(기록), 김성현(온라인), 김태원(영상)



이은주 이 행사는 플랜P 창간호 [Focus on] 특집을 위해 마련한 포럼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평화공동체 형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손 흔들며 함께 “안녕하세요!” 인사)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일상 속 거리두기 때문에 비대면 평화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느꼈고, 앞으로는 어떻게 활동해 나갈 계획인지 서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되도록 편하게, 있는 그대로 지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 포럼에 대한 기대감을 한 단어로 쓴다면?
연결/비전, 고민/질문 공유, 배움, 연결,
공동의 지혜

질문1. 코로나 시대에 평화교육 단체로서 변화의 경험이나 느낌?

박성용 대부분 알고 지내던 얼굴들이 보여서 반갑습니다. 2월에서 6월은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피부로 변화가 느껴졌는데, 경제적 타격이 컸습니다. 학교 교육 영역이 80% 정도로 지난해까지는 전망이 밝았고, 지역사회 연결도 많았지요.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이 영역의 타격이 매우 커서, ‘움추림’의 기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무엇이 본질인지 내부 피드백을 진행하며 생각해 보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60세가 넘어가면서 리더십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에 대한 감각을 다시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맞물려 돌아가는 워크숍에 따라 인생을 살다가, 멈출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민사회나 풀뿌리 네트워크에 대해 생각하면 열정이 계속 솟아 올라왔으니까요.

코로나19를 겪는 동안 테크놀로지와 관련한 밝은 미래와 한국의 긍정적 대응에 대해 로맨틱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결핍에 대한 생각 때문에 매우 힘들었습니다. 9.11 사태 당시 미국에서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섬뜩함을 느꼈는데, 동일한 두려움과 결핍을 다시 느꼈습니다. 단체의 소명을 넘어서, 전체를 관망하며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화단체 전체의 조화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지요. 개인 안보 혹은 사회적 안전망과 관련해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을 보았고, 피플 파워를 다시 생각하고, 전 세계 리더십을 심각하게 재고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세현 피스모모는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라는 정신을 중심으로, 교사 연수를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상반기 활동을 최근에 이사회를 통해 정리했는데, 양적인 변화로 보면, 교육 연수가 절반으로 줄고 참여자가 30% 줄었습니다. 교육 참여자는 지난 연도 4000명에서 올해 1200명으로 줄었습니다. 교육 형식상의 변화로는 비대면 교육이 늘어났습니다. 창립 때부터 계속해 오던 모모평화대학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온라인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모모의 교육은 몸의 자유와 권력의 재고, 몸과 몸이 부딪치고 변화하는 활동을 많이 하는데, 한 명 한 명의 몸이 바이러스의 감염체로 인식되는 상황이라 몸 활동을 진행할 수 없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몸과 연결해서 평화를 성찰하는데 제한이 있었던 것이지요. 온라인의 장점으로는 장소 중심성이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피스모모 사무실이 서울 불광동에 있는데, 늘 불광동 주변에서 오프라인 강의가 열려서 서울 중심성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열리니, 장소의 제약 없이 제주도와 독일에서도 참여하셨습니다. 장소의 구매를 받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줌Zoom의 여러 기능, 소그룹 토론방, 실시간 토론 등을 적극 활용해서 의견 교환이 충분히

일어났습니다. 다만 직접 만나서 일어나는 시너지를 온라인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조직 차원에서는 원격 근무가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사무실에 최소 5명은 있었는데, 원격 업무가 늘어나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원격 업무를 하면서 소통을 놓치지 않고 일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서정기 에듀피스는 '협동조합 회복적정의 평화배움 연구소'로 사회적 기업 인증 단체입니다. 갈등과 폭력으로 인한 개인과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는 교육·연구·컨설팅 기관입니다. 청소년에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을 하고, 함께 성장하는 배움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마을을 중심으로 일합니다. 학교 교육이 많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단절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아이들끼리도 단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교육을 갔는데, 서로 칸막이를 치고 있었지요. 본래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 안에서 배움의 기회를 찾아가는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차단된 상황입니다.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우는 환경이 온라인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의 생존 차원에서 직원 중 아무도 나가지 않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올해 초 직원을 오히려 더 뽑았지요. 사무실에 다 나오자고 약속해서 직원들 모두 사무실에 있습니다. 급할 때는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보기 싫어도 사무실에서 밀접하게 고민하면서, 직원들의 유대가 끈끈해졌습니다. 함께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안전이 확보된 회식과 나들이를 늘렸습니다. 서로를 돌보지 않아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자 맡은 강의를 마치고 곧장 집으로 가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알게 모르게 서로를 돌보는 데 있어 어려움을 남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트라우마가 교육의 주제였습니다. 코로나가 준 사회적 트라우마가 크다고 봅니다. 낮은 것이지요. 알게 모르게 강력하게 영향을 줍니다. 개인을 잘 돌보지 못하니 타인을 돌보지 못합니다. 서로를 공동체로 보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을 해야겠다고 고민합니다.

박숙영 좋은교사는 교사 단체입니다. 현직 교사 중심으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지요. 코로나로 인해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온라인 수업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격주로 오거나 한 주에 한 번 오기 때문에 돌봄을 무한 운영해야 하는 과제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덜 온다는 것 때문에 외부에서는 교사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기도 해서 집단적으로 화풀이 대상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의 수업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학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질문해야 했습니다. 교사의 역할도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같이 비전을 세우고 관계를 맺던 기회들이 줄어들고, 아이들도 역시 4월부터 등교하게 되면서 교우 관계를 연결하는 기회도 제한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유연한 배움에 대한 가능성도 발견했습니다. 교실의 기능이 이제는 배움의 장이 전부가 아니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강의식 수업이나 대면식 수업은 아이들이 그 순간을 놓치면 배움을 반복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은 개별 맞춤형 수업도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면을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천의 어느 한 학교가 진행한 자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참여한 교사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학교를 구상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던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들어 가는 학교를 한 단계씩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 센터의 입장에서는, 강의는 대부분 줄어들어 아쉬웠습니다. 본래 서울을 중심으로 연결을 강조하는 교육인데,



거리두기 상황에서 서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토킹 피스 Talking piece를 장갑을 끼고 돌리거나 세정제를 같이 돌리곤 했지요. 이 고민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정용진 한국평화교육훈련원은 회복적 정의를 전문으로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회복적 정의 협회도 같이 운영하고, 회복적 정의 가치나 담론을 이론화하는 작업을 위해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주신 질문에 답을 하면서 단체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는데, 저희 단체도 코로나로 경제적인 타격이 컸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적응하는 시간과,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평화단체’로서 받는 질문이다 보니, 조금은 거시적인 얘기를 해야겠다고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살아오던 질서의 재편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던 자본주의적인 삶의 양식을 버려야 됩니다. 소비자로서의 삶이 생존 전략이었지요.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삶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코로나로 깨닫게 됐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지구에 인간이 77억 ‘마리’, 인간을 먹이기 위한 돼지와 소가 100억 마리, 닭이 250억 마리 산다고 했습니다. 즉, 인간 중심의 사회에서 자연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미시적으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이

있습니다. 관계와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웁니다. 만지고 접촉하고 표정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해줍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잊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것을 무시하면서 사회 체제를 이끌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워드 제어는 회복적 정의를 사회 패러다임으로 봅니다. 결국, 공동체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 중심 정신이지요. 회복적 정의는 교육과 사법 영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핵심적인 가치, 공동체, 연결을 보여줬습니다. 회복적 정의 활동은 세부적인 영역에서 진행되면서도 깨어진 관계의 전환이나 거름되기를 돕는 것입니다. 인간과 사회와 자연, 인간과 비인간 영역에서 활동이 녹아들어야 한다는 각성을 주는 기회였습니다.

이은주 빛과 어둠에 대해 풍성하게 이야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각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가오는 단어가 있다면?

배움의 본질, 교육의 본질, 본질을 깨닫다,
발견 결핍으로부터의, 소중한 만남

질문 2. 코로나 시대 및 향후 2-3년 앞으로

예상되는 평화교육 활동의 전망은?

평화교육은 어떤 대비가 필요한가?

박성용 코로나 때문에 서로 악수를 못하게 되니 불편한 상황입니다. 국가의 경계를 막론하고 코로나가 영향을 끼치면서, 국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묻게 됐습니다. 공공의 안보 혹은 시민 안보의 영역에서 치고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투기 한 대 값이면 평화단체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원이 되지요. 그런 상황에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평화학이라고 하면 시대적으로 즉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클을 하면서 평화학에서는 소통의 부재와 힘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생각인데, 힘이 무엇을 봐야하는지 굴절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라기보다 현상을 제대로 보게 만드는 것이지요. 강제적인 지배적인 힘에 반대 대안적인 힘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치열함과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집중된 조명이 필요합니다. 내·외부 영역이나 평화 진영이든 그동안에 했던 방식으로는 미흡함이 보입니다. 평화활동가와 시민과의 겹은 얼마 안 보입니다. 비폭력평화물결 회원들은 활동가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활동가들은 기여하고 싶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기존 활동가들이 전문 영역과 비전, 소명을 다져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성장했는데, 그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정리하고 평화 능력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창조적 소수가 연구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전세현 예측이라기보다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학습자들은 수동적인 위치에 놓였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학습이나 등교 시기에 대해 교육부의 발표에 따라 반응하는 정도였습니다. 장기화되면, 코로나 경험을 어떻게 성찰할 수 있을까, 이 이후를 어떻게 가져갈까, 다음을 같이 계획하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2) 평화를 위협하는 것, 안전에 대해 사회적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을 지키고 사회적 안전을 위해 군사가 필요하다는 통념은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최첨단 무기가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오히려 단체로 감염을 시키는 도구가 되었던 아이러니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군사비를 더 많이 책정하고,



최초로 50조원에 가깝게 군사비를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재난 예산 확충을 위해 군사비를 운용했던 것이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군사 행동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다양한 위협과 다양한 층위의 안전에 대해 생각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3) 인간 중심의 문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지구에서 비인간 존재들을 배제하고 착취해 온 결과물이 팬데믹의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간이 비인간 존재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삶의 방식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4) 배움은 더 잘되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비판이 강해져서, 기후화가 악화되고 삶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예측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성을 잃지 않고, 서로를 해치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서정기 평화교육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했습니다. 더 본질로 들어가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연과의 연결이 다가왔고, 서로를 돌보아야 한다는 명제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면 경계 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전망을 독점하고자 할 수 있지요.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국민 소득이 얼마나에 따라 아파트 도어락과 출입문에 경계가 생긴다고 합니다. 학교 폭력이 심해지면 우리 아이를 안전한 학교에 보내야지, 혹은 문제 학생을 전학시켜야지 하는

대응을 합니다. 본질에 대한 확장으로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경계를 강화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소통하고, 그에 대한 필요성을 알려나가는 역할을 평화교육이 해야 합니다.

교육은 대면과 비대면 혹은 둘이 혼합된 방식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장점은 경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효율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단점은, 코로나 시대에 불리한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IT 기기를 갖추지 못한 학생은 소외되고 맙니다. 대학에 출강하다 보니, 다음 학기는 모두 온라인 강의로 결정됐습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강의를 해야 할지 어떻게 깨달음을 줄지 고민입니다. 실시간 온라인보다 녹화 강의에 선호도가 높습니다. 서로 편한 것에 익숙해지면서 노력해야 하는 지점을 상실해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적극적으로 평화적인 배움과 성장을 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또한, 소외와 배제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곳에 평화교육을 제공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야 할 곳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돌봄과 치유 영역에 고민해야 합니다. 케이 프라니스의 서클의 가치에 따르면, 개인의 욕구와 공동체의 욕구가 다르지 않습니다. 함께 돌보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으면, 마음의 평화처럼 개인을 위한 평화에 머무르지 모릅니다.

박숙영 국가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위기에서 평화의 필요성은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의 욕구를 양보하고 국가의 협력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공동체가 서로를 존중하는 시민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가적 차원이나 교육부 차원에서도 민주시민교육 확장을 노력하고 있지요. 사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기 전까지 국가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정부는 일반 시민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민, 성평등, 노동 등이 교육 주제들인데, 인간의 존엄, 개인과 공동체의 복지를 최종 목표로 둡니다. 사실 평화교육의 내용들이지요. 또한 민주시민교육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주시민학교를 217개교를 선정해서 교육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학교의 부지나 시설을 지역사회에 공유하여, 학교 복합시설을 늘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40년 이상 노후 학교 우선으로 시작합니다.

고민스러운 부분은,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을 확장한다고 해도 전달 방식은 비대면이 유일합니다. 비대면으로 시민성을 키울 수 있을지 고민인데요. 비대면은 공감 능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관계가 피상적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공감 교육, 시민교육이 가능할지가 의문입니다.

정용진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을 하고 있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미래에는 단순 미래와 의지 미래가 있는데, 데이터로 예측이 되는 것이 단순 미래입니다. 우리는 의지 미래 차원에서 무엇을 변화시킬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도 확진자 수가 매우 높습니다.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는 코로나가 2024년까지 유지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백신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마치 자연과 인간이 대결하는 상황 같습니다. 녹색평론 발행인인 고 김종철 선생님도 이런 역병이 빈발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보건연구팀은 신종바이러스가 연중 200개 이상 출현하고, 그중 대부분은 잠재적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지요. 암울한 예측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권위주의가 전면화되고, 지배와 감시가 있는 통제 사회. 우파가 득세하고, 개인주의 양극화와 정체성 정치, 혐오 범죄 급증, 무역 분쟁, 식량 주권에 대한 문제가 모두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의지 미래 차원에서는 공동체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미국 같은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마이클

함께 돌보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으면,
마음의 평화처럼 개인을 위한
평화에 머무르지 모릅니다

샌델이나 맥킨타이어 같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주장했던 공공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절차주의와 개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개인이 말살되지 않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 시절에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던 것이지요. 민주주의가 절차적으로 완성됐고, 공동체 주의가 한국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국면에서 한국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세계의 모델들이 몰락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공동체성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질문

1.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거나

아예 대화하지 말라는 안전지침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평화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서클 형태로 앉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는 평화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교육 내용은 전달이 되지만, 비대면 상황에서 연결과 돌봄을 전달하여 배움으로 완성시키는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박숙영 비대면 상황에서 연결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답은 없다고 봅니다. 마스크를 쓰더라도 서클로 등글게 앉으면, 표정이 다 보이지는 않아도 원격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온라인 서클을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줌이라는 환경에 익숙지 않아서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익숙해지고 나니, 온라인 서클로도 연결성과 깊이 있는 나눔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얼굴 표정을 읽기 어렵다는 것과 연결이 끊어져서 비언어적인 소통이 불가했던 면도 있습니다.

서정기 저희 단체는 학생교육 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상반기는 거의 교육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하반기에 서클을 가능하게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를 설득하고 서클로 최대한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기관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접근들이 옳은지, 필요한지 고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방식은 거절했습니다. 온라인 서클을 성인 대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화면에 토크피스가 돌아가면서 나오도록 기술적으로 구현했습니다. 80%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플랫폼 활용이 효과적인 순간들도 있습니다. 과정 전체를 온라인으로 진행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애초에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는 성인 대상 교육에서는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용진 물리적인 교육만큼의 효과를 어떻게 이끌 수 있을지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교육자가 있고 교육 받는 사람이 있다는 전통적인 방식의 교육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오프라인 교육의 효과를 충족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움이 학교에서 일어난다는 전제가 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도권의 교실에서는 서클로도 못 앉게 합니다. 비제도권의 교육에서는 어느 정도의 생활 방역을 지키면 서클로도 앉고 교육이 가능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장소에서 대면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평화교육이라는 것이 제도권 내보다는 가정 영역으로 더 파고 들어갈 것입니다. 비폭력평화물결은 가정용 서클 키트도 개발하셨던데, 교육이 다른 방식으로 발현될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혹은 아예 가상공간에서 VR로 만날지도 모릅니다. 물리적인 환경과 가상의 환경이 동일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의 부족함을 채우는 동시에 전망을 위해서 완전히 틀 밖의 상황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용 실제로 교육이 더 이상 불가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서클의 기존 방식에서 가능한 방식이 무엇인지 새롭게 구성했고, 토크스탁을 돌리는 방식 등에 대해 아이디어를 개발 중입니다. 온라인으로 비폭력 대화 관련해서 성인 대상 교육을 예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제도권 내의 서클 교육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서클 형식보다는 존중과 돌봄, 진정성이 울리는 스토리텔링 등, 서클에서 어떤 연결이나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을지, 서클의 핵심이 무엇인지 진행자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환기에 여러 시도를 하고 노하우를 서로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3. 각 단체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인지? 주변으로부터 지원받고 싶은 것이나 필요한 것은?

정용진 관계성 증진과 회복입니다.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위한 기본 교육입니다. 비대면 상황에서도 의사소통, 공감 등의 능력을 교육하는 방안이 고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교도소와 병원에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도소 수용자들은 5-8인이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집단 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분들과 서클 프로세스 대화 형식을 만들어 존중을 위한 약속을 정했는데, 결론적으로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후련했다는 평을 주셨습니다. 내면의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재소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부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필요가 채워질 때 만족도가 올라가지요. 의료진들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업무 로드(load)도 올라갔습니다. 보통 조직들은 외부 충격이 있으면, 조직 결속력이 강해지거나 반대로 와해되지요. 충격으로 인해 수평

폭력이 일어나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코로나 자체보다도 코로나로 인한 서로의 반응이 상처가 됩니다. 마음을 모으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생각할 기회가 없이 일을 수행하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병원에서 마스크를 쓴 채로, 어떤 고동이 있었는지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이야기했습니다.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기회를 확인했습니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되찾고 일깨우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인간은 표정을 보면서 감정을 읽는데, 이것들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때 어떤 방식이 가능할지 고민입니다. 제한된 여건 속에서 휴먼 스킬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연구소를 통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학교에서 어렵다고 토로하시는데, 오히려 아이들은 온라인 환경에 매우 밀접합니다. 어쩌면 많은 시간과 비중을 두고 있는 하나의 생활 영역입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온라인 속에서 소통하고 연결하는 과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온라인에서 수행하고 있는 부분들이지요.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그들이 하고 있는 소통 방식을 고민하고 배워서, 새로운 포맷에서 배움을 제공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진정한 배움이라는 것이



학교 밖에서 일어나고, 네트워크 속에서 실질적인 배움이 일어난다고 예측합니다. 서로서로 배움이 SNS 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숙영 교사 단체다 보니, 교사들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교사들의 권위적인 지도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아이들을 존중하며, 내적 자원을 장려하는 새로운 생활 지도 방식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지도를 아동 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뭐든지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사들은 어떤 지도를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오해를 받겠다'라는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런 학교에 교육을 갔었는데, 교사들은 무기력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 선생님들과 서클을 하면서, 그동안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충격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기존 교육관이 통하지 않는다는 안타까움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더 배워야겠다는 필요성과, 동료성을 회복해야겠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 간에도 괴리가 생겨서 갈등이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 힘을 기반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게 교사를 지원하고 치유해야 하는 필요성이 먼저 다가옵니다.

학교는 이 사회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교사의 행동이 미래에 아이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살아갈지 결정합니다. 교사를 활동가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을 장려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플랫폼 역할을 하는 정책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회복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회복적 경찰이 가능하도록 기회가 열렸습니다. 제도적인 확장이 되도록 정책 제안도 필요하겠습니다. 취약 계층의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궁지에 처해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도 늘어나지요. 하지만 이러한 대안학교들은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사로서 공교육보다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학교에, 학교 밖 청소년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서정기 우리는 실존을 압도해버리는 사건 앞에서 트라우마를 느낍니다. 우리를 돌보는 힘을 기르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마을 단위에서 적용할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학교라는 모델 전체를 두고 봤을 때, 학교 폭력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응보적 방식에 익숙해지면서, 그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함께 사는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고민입니다. 학부모 교육, 지역사회의 구조와 문화 변화를 통합적으로 이룰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회복적 정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교육청, 지자체, 법원 등을 지역 안에서 연결시킬 방안을 고민합니다. 에듀피스는 성남에 위치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다행히도 성남시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 등에서는 회복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천가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천가 자체가 씨앗이 되어서 삶을 살아갈 능력도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실천가 양성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높았던 진입 장벽을 온라인을 통해 낮추는 과정입니다. 교구를 개발하고, 서클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전세현 모모를 일컬어, '모두가 모든 것을 한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역할을 각 단체들이 감당하면서 생존했으면 합니다. 평화교육 영역으로 사회적 자원이 잘 몰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회원 모집이나 후원금이 모이는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일들은 많습니다. 이런 비전에 공감하고 실천하는 시민공동체가 확장되도록 단체가 노력해야 합니다. 평화 의제도 너무 추상화되거나 전문화되어서 특정 그룹에만 머물기도

합니다. 모두가 고민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도록 시민과 일상에 이를 연결하는 데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박성용 훈련 단체라는 입장에서 볼 때, 동지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분야의 일은 직원이 늘어난다고 쉬워지는 일이 아닙니다. 서클은 대중화의 방향에서 긍정성을 보기도 했습니다. 평화의 내면화라든지, 듣고 말하고, 애기하면서 진정성이 무엇인지 간파하고, 격돌하기보다 함께 일하는 측면에서 서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과 데이비드 호킨스와 같은 정신학자들의 이야기처럼 평화는 가치를 넘어서 의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평화 의식에 대한 진실과 공감과 관련된 일상의 평화라는 측면에서, 조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빵의 이스트처럼 현장을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도구이지요. 서클의 단계에 대한 임파워먼트, 갈등 해결, 치유, 해방 서클 등의 모델을 가지고 부문과 지역을 막론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진행자 양성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평화 리더십과 관련하여, 지역의 잠재적인 리더십을 단체로 끌어오기보다 동지의 역할로, 리더십을 독특하게 키워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런 활동가들을 양성함으로써 제도권 및 비제도권 교육을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단체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은주 처음 시작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에서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 수단이 커보여서 그렇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그동안 지키고자 했고, 앞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상호 이해, 돌봄, 사랑 등을 지속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단체를 넘어서 지역 사회에서도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를 연결시키고 엮어내고자 하는 준비 상태가 아닌지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의미를 한 단어로 말하면?
마무리 발언은?**

정용진 ‘의지적 낙관’.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성이 비판한다면 의지로 낙관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시대가 암울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동시대에 사람은 늘 다음 세대를 비판하지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부정적으로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을 좀 넓게 관망하면서 함께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프로메테우스적인 인간이 있고 에피메테우스적인 인간이 있는데, 프로메테우스는 전망하는 인간이라는 뜻으로 불을 가져다 준 인간입니다. 근대 사회에서는 그런 인간이 되도록 교육했습니다. 하지만 에피메테우스적 인간은 나중에 사고하고, 느리고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성찰하고 관계 맺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에피메테우스의 부인이 판도라이지요. 판도라가 결혼하면서 신에게 받은 상자를 열다가 급히 닫으면서 희망은 상자 속에 갇힙니다. 희망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변화의 흐름을 보면서 맞춰가는 자세가 희망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세를 지향하면서, 거대한 흐름을 보면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박숙영 ‘연대’. 처음에 코로나의 전망으로 강의 축소를 얘기하셨습니다. 평화교육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직에 있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었는데, 동료들이 심시일반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더 넓게는 평화활동가들이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해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후원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찰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위기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연과의

친밀함과 우리의 탐욕을 바라보고, 검소하고 불편하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서정기 '채움'. 한 기관이 모든 평화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몇 개 기관이 모여 있고, 다양한 지점에서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화교육이 우리나라에 없어서 저는 문화인류학을 공부했는데요, 삶을 잘 성찰하고 평화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쉽게 평화의 방식을 잃고 폭력을 선택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평화단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적 정의 단체와 서클 진행자가 많이 생겨서 우리의 일상이 평화의 문화로 채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세현 '연결'. 여러 질문과 고민들이 연결되는 자리였습니다. 평화교육 단체들이 모이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활동을 하는 단체들과는 연대하며 만나왔는데, 그래서 평화교육을 하는 단체와 만나는 이 자리가 더욱 특별합니다. 플랜P에 감사드립니다. 조직 구성원으로는 평화교육 단체 활동가로 여러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관에 빠져 있었었습니다. 의지적 낙관을 말씀하신 것이 기억에 남고, 우리의 고민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힘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박성용 '희망의 힘'. 희망하는 것들을 상상하는 것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실함은 평화의 영역과 연결됩니다. 이는 곧 탈지배체제를 꿈꾸는 것입니다. 저에게 어떤 시대에서든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이런 가치가 나 자신을 적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로 두려움과 결핍이 일상화되는 시대에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시각과 힘을 자각합니다. 앞으로도

기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심각하고, 진지하고, 울분이 내면화되어 있었습니다. 희망하고 기뻐하는 긍정적인 영역으로 가고자 합니다. 평화는 힘, 어떤 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평화저널'을 시도해 보려했지만 어려웠는데, 앞으로 <평화저널 플랜P>가 여러 자원들을 가시화하고, 비전을 던져서 시야를 넓혀주는 역할을 해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참가자 총 24명

김정민 노태규 노희정 문선주 서연정 석소미
성희주 양지영 이경재 이금주 이동영 이맹기
이승수 이형우 이화영 임영민 정영아 정혜영
조혜영 주지현 최경희 최인선 홍인기 황필규

비주얼라이징 피스 Visualising Peace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지도

편집위원 김가연·김성한

가연 '평화는 사람이다'라는 창간호의 주제와 <평화저널 플랜P>의 목적 중 하나인 네트워크를 한데 모은 프로젝트다. 평화를 눈에 보이는 지형으로 그려보자는 의도다. 평화는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조그마한 대한민국 땅 구석구석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한데 펼쳐 놓고 보고 싶었다.

성한 우리 주위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싶었다. 이 궁금함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대한 궁금함으로 발전했다. 각각의 강조점과 영역은 다르더라도 평화를 향해 평화의 길을 내는 다양한 단체와 활동 영역이 궁금했다.

'평화'를 키워드로 활발히 활동하는 단체들을 먼저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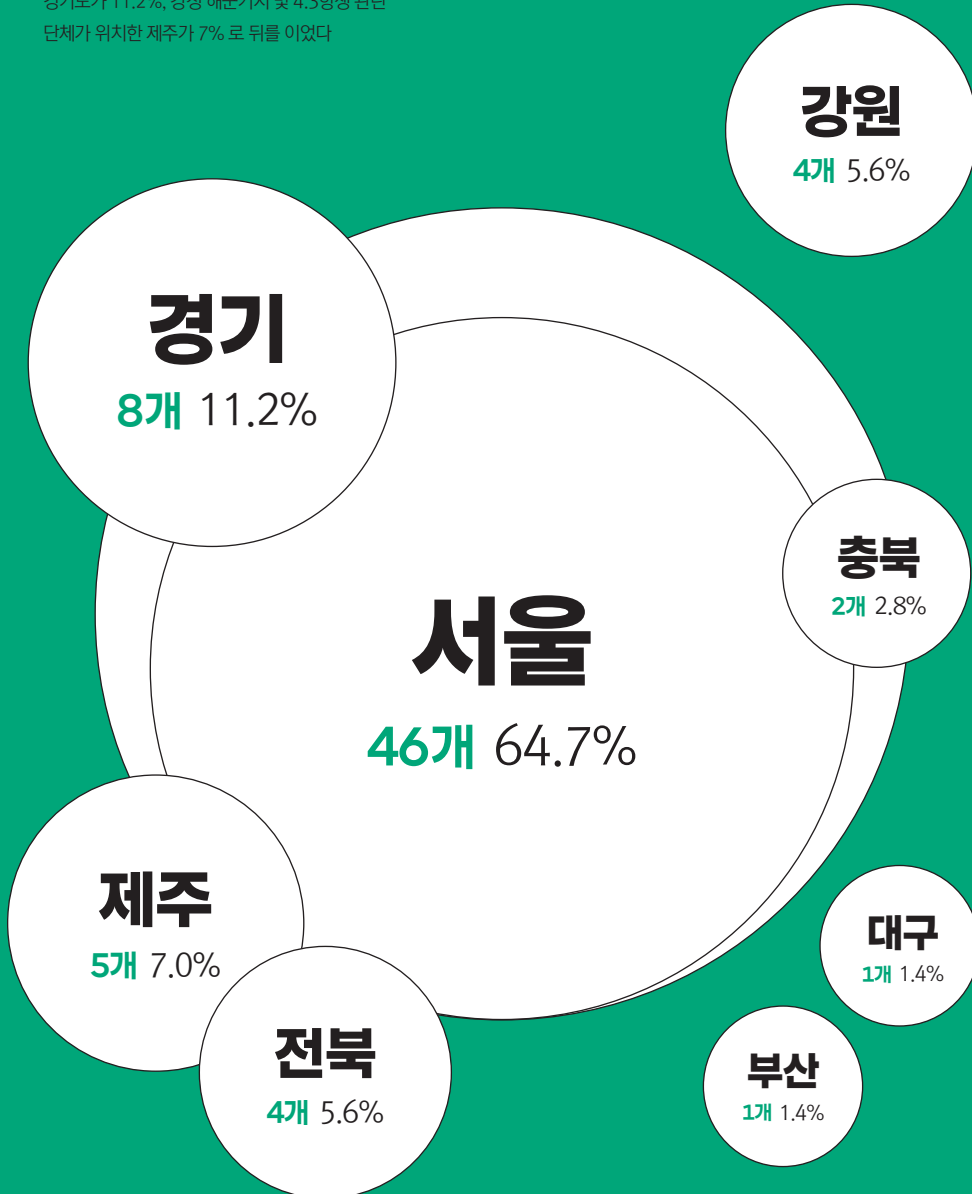
가연 평화단체를 어떻게 정의할지 평화저널 모임 초기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 단체는 넣고 저 단체는 빼자'는 데에 뚜렷한 기준이 서질 않았다. 솔직히 한국의 평화단체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10여 개 단체가 전부이지 않나 하는 선부른 추측도 있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니 엄청난 수의 '평화단체'들이 쏟아져 나왔다.

성한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평화단체

한국 평화단체의 서울중심성

서울시에 등록된 평화단체가 64.7%로 압도적
경기도가 11.2%, 강원 해군기지 및 4.3항쟁 관련
단체가 위치한 제주가 7%로 뒤를 이었다



경우도 보이고, ○○연대나 시민모임, 혹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기반으로 하는 유연한 평화단체가 있었지만,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까지의 유효한 활동이 확인되는 단체만 남겼다.

한 가지 이상의 이슈 영역에서 활동하는지 여부도 봤다. 하나의 이슈만 놓고 활동하는 단체는 지속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 중심성, 평화+통일·인권·생명”이 눈에 띄는 특징

성한 조사하면서 각 단체와 기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을 살펴보았다. 창립연도, 미션 선언문이나 단체에 대한 설명에 등장하는 키워드가 주된 관심이었다. 금정굴인권평화재단,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제주다크투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택평화센터, 한베평화재단과 같이 그 이름에 특정한 지역명이 들어 있는 경우가 특이했다. 전부 그 지명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에서 시작하여 평화를 향해 가는 표지판처럼 읽혔다. 물론 예상했던 대로 많은 단체들의 주소지는 서울이었다.

가면 서울 중심성은 특히 도드라졌다. 갈등이나 이슈 등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데, 그런 이슈에 대항할 에너지들은 주로 서울에 모이는 것 같다. 특정 이슈가 있는 장소(평택, 제주) 몇몇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행사나 모임, 교육, 시위들도 서울에서 일어난다.

성한 평화와 함께 등장하는 다른 키워드를 살펴보는 것 역시 흥미로웠다. ‘통일평화, 생명평화, 평화인권, 여성평화, 정의평화’와 같이 평화와 키워드가 짝을 이루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해당 단체가 지향하는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했다. 물론 이름만 봐서는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도무지 짐작이 되지 않는 단체들도 있다.

다양한 종교, 종파에서 시작된 평화운동이나 평화단체도 많이 보였다. 그런 단체들은 종교 간 갈등이 큰 주제이기도 하지만, 각 종교가 간직하고 추구하는 생명, 평화의 영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 평화단체로 볼 수 있는 자질이 확인됐다.

가면 인권과 통일 단체가 많은 것이 한국 시민단체의 특징 같다. 평화를 키워드로 둔 단체들도 인권과 통일 키워드를 함께 갖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회복적 정의와 평화교육을 다루는 평화단체들이 비교적 신생 평화단체이고, 오래된 단체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통일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단체들 사이의 관계도 보였다. (다음 호에 실릴 작업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한 단체에서 분리되어 나온 다른 단체들도 발견했고, 서로 즐겨 연대하는 단체들도 눈에 띄었다.

평화단체의 A부터 Z를 보여주기는 한계, 탈경계, 탈영역, 역량 있는 개인 활동가를 비주얼라이징 하는 것이 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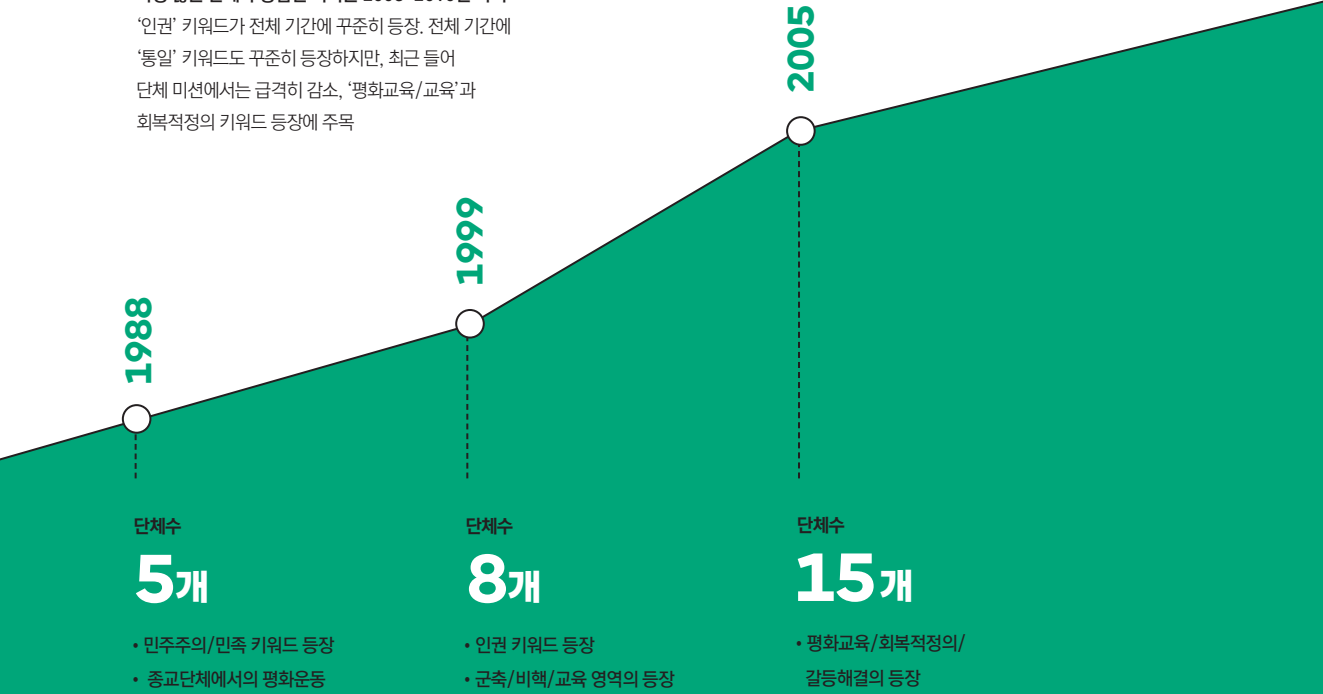
성한 우리나라 평화단체 현황을 잘 보여주려고 노력했지만, 분명 이 프로젝트에 담기지 않은 것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소개된 단체와 운동은 지금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화 움직임의 아주 작은 일부다. 지난 몇 년간 평화 영역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등장한 이름들과, 검색 엔진에 주로 의지한 작업이기에 너무 많은 한계가 있다.

가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평화단체를 A부터 Z까지 조사하지는 못했다. 여러 한계가 있었지만, 카테고리리 분류해야 하는 경계에 대한 질문 때문이기도 했다. 사실

창립연도와 미션

키워드로 보는 평화단체

가장 많은 단체가 창립된 시기는 2006~2010년 사이
 ‘인권’ 키워드가 전체 기간에 꾸준히 등장, 전체 기간에
 ‘통일’ 키워드도 꾸준히 등장하지만, 최근 들어
 단체 미션에서는 급격히 감소, ‘평화교육/교육’과
 회복적정의 키워드 등장에 주목



요즈음은 미션 키워드나 활동 지역 같은 경우, 많은 부분 그 경계가 해체되는 추세다. 평화라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다양한 의미에서 평화의 미션을 수행하는 단체도 많고, 미션에 한마디로 담을 수 없는 융합적인 가치로 평화활동을 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다. 특히 물리적인 위치는 대한민국에 있지만, 글로벌한 의제와 연대를 갖고 활동하는 단체도 늘어나고 있다. 특정 이슈를 갖고 모였다가 해체되는 유연한 방식의 평화단체도 고려할 만하다. 더욱이 개인 활동가에 대한 인식은 재고해야 한다. 한 단체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활동가가 여전히

다수이지만, 파트타임으로 여러 단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활동가도 늘고 있다. 또한 개인 활동가이지만 단체를 대신할 만한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탈영역, 탈경계 추세를 어떻게 비주얼라이징 피스로 보여줄지는 속제로 남겨두고 있다.

**비주얼라이징 피스가
 평화단체 네트워크의 출발점이 되길**

2010

단체수

18개

- 통일/평화통일 미션이 더욱 증가·난민, 미군기지 키워드 등장

2015

단체수

16개

- 교육/평화교육 미션 증가
- 회복적정의/회복적서클 관련 단체 증가
- 국제/글로벌, 갈등 조정 키워드 등장

2020

단체수

10개

- 통일 키워드 감소
- 연대 키워드 증가

성한 계속해서 평화의 길을 걷고, 그 길을 놓는 이들을 호명하고 연결하는 작업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마 <평화저널 플랜P>가 하려는 일도 이런 작업일 것이다. 그래서 '왜 우리 단체는 소개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메시지가 많이 도착하기를 바란다.

가면 데이터 해석 자체의 전문성보다는 이 프로젝트가 양산할 움직임에 기대를 걸고 싶다. 비주얼라이징 피스가 활동가와 단체들이 서로를 인식하고 연대하는 출발점으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비주얼라이징 피스 지도

비주얼라이징 피스 QR 코드는 평화단체 현황을 보여주는 구글 지도로 연결됩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평화단체들을 창립연도와 지역별로 구분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평화는 이미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비폭력평화물결 대표이며 ‘평화서클교회’ 담임목사이신 박성용 선생님을,
서울 옥수동의 은은한 조명이 감미로운 ‘피스박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연약했던 한 개인이
어떠한 삶의 흐름으로 지금에 이르렀는지, 평화란 무어라고 말하고 싶은지 들어보았습니다.**

인터뷰이 박성용
기록 김유승
글·정리 이은주

비폭력평화물결의 대표를 맡게 된 시작은 무엇이었나요?

1999년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멜 던컨과 데이비드 하소는 ‘전쟁이 있는 곳에 손을 잡고 인간방패가 되어 막겠다’는 순진하지만 진지한 생각으로 공동 발의하여 NPI(Nonviolent Peaceforce International; 국제 비폭력평화 연대)를 세웠습니다. 2002년에 데이비드 하소가 내한하면서 퀘이커 배경이신 박성준 선생이 초대 대표로서 NPI의 한국 지부인 NPC(Nonviolent Peaceforce Corea; 비폭력평화물결)를 창립되었습니다.

나는 2001년에 10년간의 미국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제자이신 이행우 선생은 퀘이커로 미국에서 7~8년간 통일운동을 함께했었는데, 그분의 연결로 유네스코 시민사회실장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에 박성준 선생이 전화를 주셔서 단체를 같이 이끌자고 제안한 것이 직접적 인연이 되어 공동대표가 되었고, 5월에 ‘한강 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상임위원장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화 한 통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가느다란 실들이 몇 개 있었고 그런 인연들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 맡은 사업도 내 고향에서 멀지 않은 강화도 외포리에서 진행되었는데, 어릴 때 떠나고는 다시는 안 오겠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나의 삶이 이어진 것이지요. 사람 간의 인연들과, 분단과 관련한 과거 경험과 기억들이 새롭게 연결된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그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면, 귀국 후 어디에서 활동하셨을까요?

내 전공은 에코페미니즘이었는데, 남성이기도 하니 자연히 소멸돼 버렸습니다. 그래도 학위가 아까우니 10년 이상은 종교학 강의를 했지만, 생존을 위해 대학에 있으면서도 한국의 권위주의나 자성계에서 권력의 움직임들이 눈에 띄니까 체질상 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생존보다는

‘의미’를 찾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상하게 내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허용하지 않으면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이야기에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에,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한 4년 근무하다 그만둔 것도, 폐결핵을 앓은 후에 이상하게 공부가 하고 싶어서 신학교에 진학한 것도,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것도, 박성준 선생님의 전화 한 통에 여기서 일하게 된 것도 전부 의미와 관련하여 결정해 온 것입니다.

폐결핵이 그때는 중병이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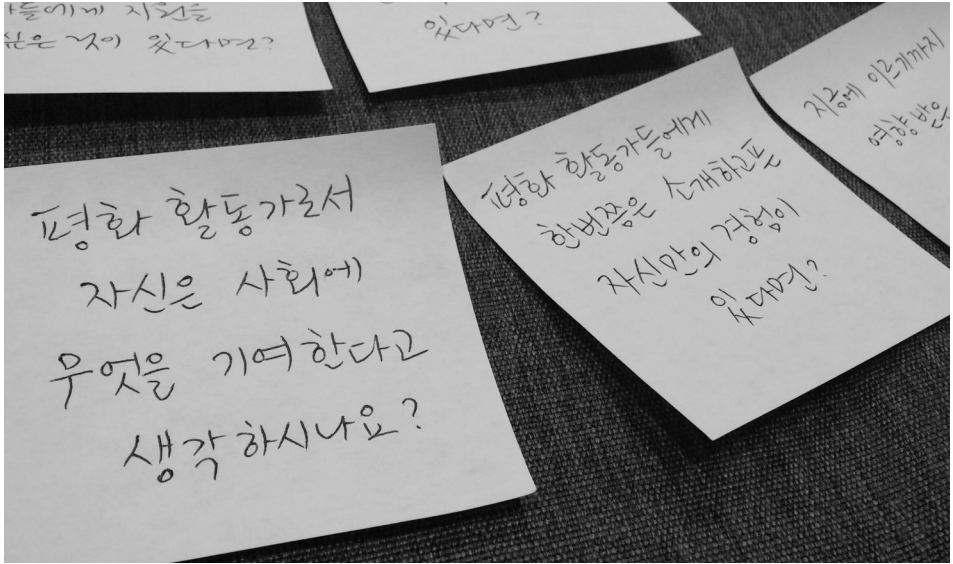
당시 경증을 넘어서 중증도 시기였는데, 각혈을 할 때까지 몰랐습니다. 피가 막 쏟아지던 경험이, 증세를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몸속에서 병이 이미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나중에는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내가 왜 전선 운동보다는 사람을 세우고 뒤에서 훈련자로 살아야 하는가를 성찰하게 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었다는 것, 병이 나면 아픈 게 당연한데 자기 몸인데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병은 진행된다는 것. 징조를 어떻게 알고 미리 대비할까 하는 것을 사색하게 되었습니다. 평화 영역에서도 급한 것을 땀질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 사색하는 데 폐결핵 경험이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자신을 만든 핵심 경험을 소개한다면?

내가 태어난 곳은 지리학적으로 북한에서 2.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가장 가까이 보이는 북한 마을에 커다란 스피커가 있었는데, 우리 쪽도 이장 댁에 스피커가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민요가 나가고 그쪽에서도 노래가 나오다가 느닷없이 날카로운 프로파간다가 시작되곤 했지요. ‘미제의 앞잡이’ ‘도깨비 같은 김일성’ 등의 말들이 오가는 것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무엇이 문제인지 묻거나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영향을 준
인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성찰해야
나의 길을 갈 수 있다.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침묵의 문화였지요. 나는 분단 상황에서 태어났고, 이름도 아버지 고향인 '성천군 부용면'에서 한 자씩 따서 지어졌습니다. 그런 인연들이 '분단'에 관해 '대화'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또 하나의 큰 경험은 1992년 '로드니 킹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LA 폭동 사건이었습니다. 흑인이 백인에게 구타당하고, 한인 점포 2천여 개가 불에 탔지요. 이를 목격한 때부터 나의 내면에서 뭔가가 '뻑' 깨져나가면서, 사회적 두려움이 외적 부분에 대한 분노와 심각함으로 옮겨갔습니다. 2001년 9월 11일은 박사논문 최종 제출일이었는데, 바로 그날 쌍둥이빌딩이 폭파되는 9.11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엄청 쇼킹한 일이었고, 거기서 오는 참혹함이 기존에 걸어온 길의 방향을 바꾸게 했습니다. 원래 기독교 영성과 도교의 자유와 관련된 개인적인 관심분야에 집중하려 했는데, 다 버리고 사회적 재앙에 관한 자각을 토대로 새로운 영역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버지에게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아버지는 북한에서 활동하는 군인이었는데, 미국 CIA가 북한 청년들을 모아 북파공작원으로 이용한 '켈로(KLO, Korea Liaison Office 부대)' 소속이었습니다. 몸에 상처도 많으셨습니다. 평상시는 괜찮으신데 술을 마시면 사람이 달라져서 가족들을 괴롭혔습니다. 전쟁이 주는 그러한 비애가 비단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나중에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미국에 있던 중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서 잠깐 한국에 들어왔는데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본인이 켈로 부대 출신이라는 것을 그제야 털어놓으신 것인데,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도 아쉽습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영향 받은 인물이나 사상은?

역시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 1869-1948)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남아프리카에 있을 때,

인종차별로 인해 열차에서 밖으로 내동댕이쳐지면서 겪은 그 억울함과 분노를 비폭력 평화활동으로 승화시킨 일화가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신은 진리다’가 아니라 ‘진리가 신이다’라고 말하며, 실천성을 무엇보다 앞에 놓은 것이 나의 시각을 확 바뀌게 했습니다. 파커 파머 Parker J. Palmer, 1939~ 로부터도 사상적 흐름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니코스 카잔차키스 Nikos Kazantzakis, 1883~1957의 전집을 다 읽을 정도로 푹 빠졌었고, 키에르케고르 S. Kierkegaard, 1813~1855와 표도로 도스토예프스키 Fyodor Mikhailovich Dostoevskii, 1821~1881에게도 역시 영향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복음서를 평화의 관점에서 다시 보고 있습니다. 60대에 가까워지면서는 데이비드 호킨스 David Hawkins, 1927~2012의 영향으로 실재와 존재, 행위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평화는 행위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고, 평화가 곧 길이다.’라는 말에서처럼, 데이비드 호킨스는 평화를 존재의 영역으로 처리했습니다. 평화에 반하는 문제가 벌어졌을 때 저항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의 운동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존재의 근원에서 평화의 힘과 방식이 나오는 것임을 이해하는 순간 힘이 덜 들게 되었습니다. 본래적인 것은 찾아야 되는 것이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나 절망스런 것이 왔을 때 거기에서 용기를 내거나 수용하면서 자발적인 힘을 내고, 사랑의 힘을 발휘하면서 평화로 갈 수 있는지... 평화와 사람과 의식과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암시를 하고 있고, 이것이 존재의 기반이면서 ‘온전함’에 대한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시 시작하게 하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영향을 받은 존재 가운데, 동물도 있으시다고요?

나는 웅장하고 영웅적인 인물이나 사상가보다는 비참하거나 작은 어떤 존재를 만난 경험들이 나를 더 크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지낼 때 혼자서 아침 산책을 하다가 뜰에서 토끼를 만났는데, 정면으로 맞닥뜨린 채로 그곳에서 서로가 3~4분가량을 멈춰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토끼가 자기대로 하던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바랐지요. 하지만 토끼에게 나는 존재 자체가 겁을 먹게 만드는 것이다 보니 결국 조금 있다가 토끼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경험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도를 달리해도 상대보다 많은 것과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에게는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실천한 것이 있어요. 나는 미국에서 백인들 거주지에 살았는데, 거기서는 목회자에 대한 존중이 있었기 때문에 한인 목회자들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로만 칼라(성직 칼라)를 하고 다녔습니다. 나는 그것 역시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로만 칼라를 하지 않았고, 일반 한인들이 당할 수 있는 무시를 감내했습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크고 위대한 것보다는 연약함이 나를 안내하고 인도했던 것 같습니다.

박성용이 생각하는 '평화'란 무엇인가요?

평화를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함'에 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평화는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근원과 실재를 발견하는 것이고, 내가 노력하고 추구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내게 허용된 선물이자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거기에 어떻게 접속되고 연결되고 속할 수 있는가 하는 차원의 문제이지 애써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졌으나 우리의 예고가 강해지면서 '진짜 나'와 내가 분리될 때, 원래 있는 평화가 주는 분별과 극복의 능력이

작동하지 못할 뿐입니다. 평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실재의 경험과 관련된 것이지요. '내면의 빛'이라고도 하는데, 내 과거의 습성이나 원주 모르게 씩워진 덮개들로 인해 감춰져 있습니다. 그 덮개를 벗어던지고 가장 근원적인 자기 안의 어떤 힘, 지혜, 에너지와 연결되는 것이 바로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는 정부나 국회에 어떤 말들로 이러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본래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으로서의 평화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두려움과 결핍'이라고 봅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나는 일관되게 나의 것으로, 사랑과 평화의 힘으로 현존하면 되는 것인데, '두려움과 결핍'은 사람들이 지배당하기 쉽게 만드는 아주 핵심 원리입니다. 그 두려움이 실제인지, 결핍이 정말 사실인지를 인지하고 분별하려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즉, 누군가 변해야 한다는 접근보다는 각자에게서 나오는 이야기를 잘 듣고 열린 질문을 통한 발견과 이해로 소통해야 하는 것이지요. 내적으로 진실한 것과 연결되고, 함께 연결된다면 정직과 존중, 돌봄에 기초한 커뮤니티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30년 이상 공무원으로 일했으나 퇴직하면 뒤도 안 돌아본다고 합니다. 공공영역에서 '공공선'에 해당하는 질서들이, 강제나 두려움이 그 토대이며 그러한 에너지로 살아온 것이 일종의 껍데기로 존재했던 것이지요. 한국 사회는 옳고 그름이라는 논리에서는 빠삭한데, 그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들고, 오히려 서로의 프레임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나는 행정 언어 뒤에 감춰진 진실의 언어를 다시 찾고, 상대를 존중하며 서로의 진정성을 소중히 하는 과정이 이제는 일 자체만큼이나 귀중한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해관계나 서로의 견해가 다르다고 그것을 주고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오래 못 간다고

앞으로는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입니다. 따라서 대화하는 능력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적인 것이 공적인 것이다’라는 페미니즘의 문법에서처럼, 시민사회에서도 서로가 개인적인 삶, 특별히 가족 안에서도, 자신들의 진정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빠르고 복잡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짚고 확인하면서 가야 하는데, 나는 이것이 ‘평화’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사회 시스템 전반을 움직이는 그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삽으로 땅을 팔 때 그들은 포클레인을 쓰는 만큼, 더 큰 영향력이 있으니 더 많은 생각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래적이고 진정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감각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면 적을 많이 만들면서 정치를 하는 것이기에, 평화는 몹시 실용적 방향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앞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효율성보다 공공의 기반이나 안전 등인데, 효율성과 진실성이 함께 균형 잡히지 않으면 사회 구조가 전체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어서 새로운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 있고,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확인하고 성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에 신뢰라든가 소통 등이 자본 이상의 자본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평화활동가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금년 1월에 3박 4일 동안 전국에서 서클 관련한 7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한국 서클 진행자 네트워크’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전국의 14개 지역에서 각각 평화 훈련과 서클 진행 관련한 그룹들이 격년으로 1회씩, 앞으로 6년간 총 3회에 걸쳐서 모임 예정이고, 다음 연도에는 서클 진행자 훈련 과정을 3박 4일로 진행하려 합니다. 이는 서클 프로세스 자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관계와 대화, 나아가 운동까지 뭐든지

주는 것이야말로 평화에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서클을 현장에 사용할 수 있게, 누구에게나 적정기술이 될 수 있게 안내하여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함입니다. 또, 그것이 바로 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소통의 부재와 힘의 남용' 이 두 가지가 모든 것을 왜곡시키는데, 이를 가장 안전하게 바꿀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서클 프로세스입니다. 혼자서 전체를 이끄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리더십의 방식, 모두가 이야기하고 경청하며 연결되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실천되기만 하면 사회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시나요?

딸들과의 소통은 쉽지가 않습니다. 삶이 너무 달라서, 나는 그저 들으려고 합니다. 두 딸에게 방 청소를 안 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게 소용이 있나?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는 듣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무엇이 너의 생명을 살리는 데 중요하니?'

앞으로 하고자 하는 활동은 무엇이고, 그를 위해 평화 영역 조직이나 활동가들에게 지원을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펜들힐 케이크 공동체를 경험한 뒤 한국에 돌아오면서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는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주는 것이야말로 평화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신 또는 자기 단체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무언가 필요해 보여서 남에게 퍼주면 결국 자기 것이 되는 경험을 해 왔습니다. 내가 속한 비폭력평화물결은 지역에 리더십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데, 그것이 곧 우리 단체를 키우는 일이고 상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새를 키워서 날려 보내면 각각의 동지를 만들어 결국 사방에 여러 동지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바라'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 하며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하고 있다'는 감각으로 활동합니다. 지역에서 이슈를 다룰 수 있는 핵심 역량을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의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평화의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사람'의 문제이고, 질적으로 헌신의 힘을 갖고 있는 그룹이 형성되어 결국 시민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평화'는 대화, 갈등전환, 트라우마, 회복적 실천 등, 이제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발전되어 나뉘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꿰뚫을 수 있는 보편 원리가 뭘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더 많은 내용들을 배워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나 당위에 도달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방식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단순하고 보편적인 원리가 있다면 그중에 필요한 만큼 추출하여 자기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방식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쁨과 평화로움을 누리면서 살고, 자기 힘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파편화된 쪼개진 영역들 각각을 알아가고 있고, 나중에는 통합하고 정리하여 기여하고 싶습니다.

평화활동가 동료들이 자신에 관해 알아주었으면

하는 게 있다면요?

'평화'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모두에게 필요하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특수한 사람만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어 있습니다. 낯은 언어이지만 '소명'이라는 것, 자기 삶의 송고함이랄까 진정성이랄까 하는 것과 평화활동은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프지 않게 밥을 챙겨 먹듯이, 평화도 의식적으로 계속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요. 치열하게, 자기 투신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이걸 왜 하지?' 하는, 자기 소명에 관한 감각을 갖고 가는 것이 평화활동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은 낯선 것이 아니라 본래의 것을 찾는 일이란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것에 한눈팔지 말고, 신성한 어떤 부름에 대해 자기 자신을 던지는 용기가 정말 필요합니다.

평화활동가들에게 한 번쯤은 소개하고 싶은 자신만의 경험은?

작을지라도 어떤 영감을 받은 순간이 있다면 그것이 스스로에게 '샘'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대 중반, 폐결핵을 앓으면서 3개월을 기도원에서 지냈습니다. 이때 꿈 하나가 지금까지도 나를 양육해 주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꿈 자체는 남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신비의 경험이 가득 뒤섞여 있었는데, 추락하지만 멸망하진 않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 꿈에서 깨어 아침에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거리는 코스모스를 마주하고 이마에 내리쬐는 햇빛을 받으며 실재와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는 타자에 대한 연민이 일어나 나의 내면이 뜨거워지고, 내 몸의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눈과 입이 성글거리면서 말을 하고 있는 어떤 일치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특권이나 어쩔 수 없는 유혹이 왔을 때 아슬아슬하게 허용하지 않았던 순간, 내가 보호받고 있다고 느껴지는 경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뭔가가 내게 다가와 '생명력과 보살핌을 받고 있구나!' 알아차리게 되는 작은 체험들이 나를 살아가게 만들었고, 삶 전체를 보게 해주는 통찰을 얻는 데 무척 중요했습니다. 이렇듯 영감이 드는 어떤 순간들을 멈춰서 바라보고 주목하면서, 모호하지만 나를 이끄는 어떤 순간이나 경험에 자신을 맡기며 살아보는 것, 그런 감각을 갖는 것이 평화활동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화'라는 것이 존재론적으로 선하고 참된 자신이 되어가는 것이라면, 자신은 이를 발견해 내고 온전함을 발현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화활동은 힘들 것입니다. 국가폭력에 우리는 그간 한 번도 이겨낸 적이 없지요. 나중에 인간이 노력해서 성취해야만 하는 것으로 평화를 생각한다면 이내 지칠 것이라 봅니다.

이 지면을 빌려 특정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 자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생이 다할 때까지, 자신이 누군지 얼마만큼 알아차릴 수 있을까. 얼마만큼 정확되거나 온전한 자기 자신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때로는 절망스럽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애쓰다가 이내 죽는 것 같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경중이 내게 울립니다. 나 자신이 삶에 대한 배움에 계속 치열하길 바랍니다. 어떤 마스터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과 중요한 것에 관해 나누고 가이드가 되어줄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을 했고, 무슨 성찰이 일어나는지?' 질문하는 산파의 역할은 내가 연마하여 해볼 수 있겠습니다.

<평화저널 플랜P>에 기대하는 것?

평화에 도움 되는 자원에 관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잠재적인 것인데 이를 어떻게 사람들이 인지하도록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평화단체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 전체의 양상과 흐름을 살피면서 활동하고 또 증언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안의 휴먼 리소스 관련한 정보 공유와 연결에도 큰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평화 영역의 스토리이긴 하지만, 결국 공공 영역에 내놓는 객관적 증거이기 때문에 말을 걸고 또 보여주는 하나의 '창'으로 기능하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여러 브레인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도 개인의 굳어진 두뇌로 있기 때문에, 감쪽한 생각들을 연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표현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만약 평화활동가로서가 아니라 다른 직업으로 살았다면 어떤 인간이 되었을까. 세상의 생존자로서 헉헉거리면서 살아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평화활동이 나를 구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삶이 무엇으로 이뤄져 있으며, 우리는 또 누구인지... 이러한 정체성에 대해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또 희망하는 삶을 꿈꾸며 가능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내가 세상에 준 것보다 나 자신이 받은 선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활동하는 것이 삶을 좀 더 질적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조심스레 믿어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평화활동가라는 정체성 갖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나도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살고 싶고, 동료들도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만큼 진실할 수 있을까요?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정직하며,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대로, 그 울림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평화활동이라는 강렬하고 명료한 메시지를 주신 박성용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순항쟁 서울유족협회의회의 탄생과 과정

유족회와 연대하는
서울통일의길을 만나다



‘서울통일의길’ 대외협력실장 송원재 선생님은 3년 전부터 여순항쟁 서울유족협의회 연대 활동을 맡고 계십니다. 시작의 여정에 있는 <플랜P>처럼, 같은 일을 경험한 이들이 모여서 바라는 바를 이뤄내기 위해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과정에는 여러 손길들과 에너지가 필요할 테지요. 송원재 선생님을 통해 이제 막 시작하는 곳 ‘서울유족협의회’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인터뷰이 송원재
기록·글 수피아

서울유족협의회(유족회)의 탄생과 그 과정을 알려주세요.

10·19사건 또는 여순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여수, 순천 구례, 광양, 고흥 지역에 연합회가 존재하는데, 여순사건은 지역 문제라기보다 전국 문제이지요. 1948년 이후 여순사건이 퍼지게 되는 것은 한국전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3년 전 처음으로 시민단체와 유족회와 광화문에서 위령제를 지냈는데, 그때부터 저희 통일의길이 유족들과 결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948년 당시의 피해자들로서 현재 평균 연령이 70대이십니다. 그중에 젊다는 이유로 사무국장을 하고 있는 분이 60대. 행정력이 미흡할 수밖에 없지요. 알려야 하는 일이다보니 어쩔 수 없이 집회, 행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주도해서 도와드리며 인연을 맺어오고 있고 일단 주력 사업으로는 10·19여수 '사건'을 3년 전부터 '항쟁'으로 규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순항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년 전부터 단순히 일방적 피해가 아니라 항쟁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제주 무력 진압에 따라 자국민 진압은 안 맞다 해서 14연대가 진압을 반대하였고, 그것을 지원한 여수·순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1948년 건국 수립 이전부터 건국준비위원회나 인민위원회 지역모임 시민들의 자발적인 저항을 역사적 인식 차원에서 항쟁으로 보자, 그리하여 여순항쟁 유족회 명칭으로 시민사회와 같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사회는 항쟁이라서 연대하는 것입니다. 항쟁했다는 역사적 인식이 시민사회에 강한 것이고, 유족회는 점차 인식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지역에서는 2019년 위령제할 때 희생자 수를 공식적으로 1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2만 명을 거론하였습니다. 거기에 진압군 군인들과 경찰들도 넣어야 한다는, 그 당시 희생자를 다 아우르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대다수 유족들도 반대한 이유는 수십 년간 빨갱이 탄압을

받아온 유족들이라 그런 역사적 인식이 제대로 정립된 다음에 생각해봐야 한다고 한 것이지요.

유족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여순사건특별법을 발의하려고 했으나 20대 국회에서는 안 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얼마 전 발의가 올라왔는데, 국회의원 300명 중 154명이 찬성 발의했지요. 그것이 첫 번째 유족회 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배·보상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 명예 회복과 진실 규명만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자는 것이 공통된 입장입니다. 순천에서는 이전에 다른 법으로 보상을 받은 부분도 있고, 유족회를 보상 때문에 한다는 것은 우매한 세력의 흑색선전이지요. 국회 앞에서 작년 10월부터 노인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태 1인 시위를 진행한 겁니다. 조금 전에 통화하길, 코로나 때문에 처음으로 1주일을 쉬었다고 하십니다.

그 외에 어떤 사업이 더 있나요?

유족들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운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대를 하기도 하는데, 협력하는 저로 인해서 민주노총이나 한국진보연대 쪽과도 연결되어 유족들 상황을 알리고, 유족회에서도 자발적으로 연대의 폭을 넓히고 계십니다. 연대 사업 첫 번째로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가 있습니다. 여순사건이 일어난 것은 1948년 10월 19일이고, 국보법은 1949년에 제정됐는데 이승만 정권이 법을 제정하고 나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해버렸습니다. 사실 법이란 것은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것인데, 1949년 국보법을 만들고 여순사건 관련자들을 그 법으로 처벌하였지요. 여순사건 유족들도 국보법 피해자이기 때문에 국보법 폐지 운동에 동참하는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대가 필요한 곳들은 워낙 많으나, 젊은 사람이면 다 할 텐데 다 동참하기 힘든 연배들이라 보니 저는 연관 사업만 연대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군 범죄에 관한 연대 활동이 있습니다.

유족들의 자제분들도 동참하시는지요?

유족들은 70년 넘게 빨갱이라는 누명으로 살다 보니 유족들의 2세, 3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관계자들이라는 것을 대부분 모릅니다. 자녀들이 (연좌제로) 희생자가 될까 봐 알리지 않았지요. 유족들 동력을 얻기 위해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들 데리고 와서 같이 활동하자고 말씀 드리지만, 본인들이 탄압 받던 역사 때문에 아직도 이에 대해 모르는 자녀들이 많고, 안다 하더라도 결부되면 지금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같이 활동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광주항쟁이나 세월호 사건 등은 정부로부터의 희생자라고 생각하지만 여순항쟁은 다릅니다. 제주4.3과도 같지만 다른 부분이 있지요. 제주는 육지와 섬이라는 어떤 대립구도도 있었고, 지역적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국보법 문제라는 차이도 있어서, 제주4·3은 여순항쟁보다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 이상이 빨랐습니다. 여순항쟁은 일종의 이념 문제랄까요? 14연대의 지창수 상사가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동기가 되어 반란을 일으켜 급하게 세워진 남한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게 지금의 보편적 인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과거 우리나라 항쟁의 역사들을 보면 항쟁에 참여한 인물들은 80퍼센트 이상이 친일 장교들이었는데요. 역사 인식 자체가 다릅니다. 제주4·3은 폭도는 당연히 죽이는 것이 당시 장교들의 생각이었다면 여순에서 일반 군인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순항쟁의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 과정에는 역사 재인식을 다 마치는 것이 필요해서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 당시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해주시겠어요?

군인 전체가 아니라 사병들과 부사관들이 주민들을 사살하는 것은 부당한 명령이라



생각해서 이를 거부했고,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호응하였습니다. 1945년 해방되고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건준위)에서는 ‘인민’이란 단어를 ‘피플’과 마찬가지로 의미에서 혼재해서 사용했거든요. 지금에서는 사회주의 단어가 되었지만, 그만큼 우리가 자생하겠다는 뜻이 강했습니다. 당시 마을 청년들은 모여서 인민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소설 배경으로 한 어느 영화에서는 마치 항쟁이 북쪽 정권에 호응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 상징으로 인공기가 펄럭이던데 역사적인 증언들을 확인해보니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좌익, 사회주의자 하면 북쪽에 호응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인민위원회 정서였지요.

토지개혁부터 짚어야 합니다. 정부의 고문이라 할 수 있는 미군정이 토지개혁을 하지 않았고, 결국 친일파, 경제인, 정치인들 손에 넘어갔습니다. 자생적인 조직에서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불만이 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요?

국회 20대 때 과거사법이 제정돼서 올해 말부터 시행됩니다. 과거사법이 시행되면 한국전쟁, 여순항쟁, 형제 복지원, 광주항쟁, 하다못해 김재규 항쟁까지, 그것도 과거사법으로 진행되는데요, 여순사건이



특별법으로는 유보되면서 과거사법 안에서 다루어지게 된다면 졸속으로 다뤄질 것이다 하는 시각이 제법 큼니다.

왜냐하면, 과거사법에 투입된 행정력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의 작은 부분으로 다뤄지게 되지요. 특별법이 만일 올해 제정되면 과거사법에서 분리해서 따로 다뤄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안에 제정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국회에서는 법안이 발의되고 나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0명 내외가 있는 소위원회에서 다루지요. 법 타당성으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는데요, 법사위까지 넘어가려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20대 때는 행안위 상정 자체가 안 됐습니다. 여순사건 자체가 이념성을 띤 문제라고 봐서요. 찬성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도 많았습니다. 올해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찬성해서 넘어갔는데, 행안위 소위원회로는 올라갈 것 같은데 야당 쪽에서 쟁점과제로 삼으면 조금 복잡해질 겁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미래통합당 같은 당은 사상적인 부분에

침예한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인 피해 사건으로 하면 상관 없지만 말입니다.

여순항쟁은 정략적으로 다뤄질 것이 아니라, 70년 통한을 가진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진실 규명을 목표로 하는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작년과 재작년만 해도 유족회를 시민사회가 끌었다고도 보였는데, 요즘은 저도 시민사회도 아닌, 유족회가 앞서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는 집회나 행사 때 아예 저는 간단히 사회만 보고 유족들 위주로 진행합니다. 이 사건 자체에 색깔이 있다고 오해받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올해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는 지역 의원들 위주로 힘을 쓰려고 하는데, 이번엔 전부 초선 의원들이시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진 의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을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2019년 지역 의원들이 여순사건 당시 경찰이나 진압군인 유족들의 피해 보상에 관련한 의견들도 허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발의하기도 해서 유족회에게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여순항쟁은 70년 통한을 가진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진실 규명을 목표로 하는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이 안 되면 상당한 기간, 21대 후반이나 22대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과거사법이 시행돼서 처리되면 특별법 제정을 미루게 되지요. 과거에 순천은 배상이 과거사법으로 처리된 적 있어 유족들이 크게 애달파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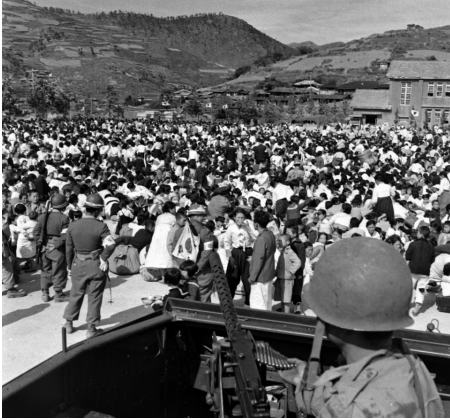
희생자 보상 문제에 관해 사건 브로커도 존재한다면서요?

유족들 안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습니다. 사건을 맡는다고 해놓고 유족들에게 돈 받고 도망가거나, 보상을 받아도 알고 보면 엄한 법으로 배·보상을 받아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되어도 해당사항이 안 되게 만들어버린 것도 있지요. 예를 들어 유족들 중에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예비검속 등으로 학살당한 뒤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아낸 브로커들이 있는데,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 유족은 명목이 없게 됩니다. 이 사건들은 못 받을 것 같은 배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수입로가 꽤 센 편입니다. 이것은 유족들

내에서도 편이 갈리는 문제입니다. 서울유족회 입장에서도 서울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서울유족회는 100여 명인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도움으로 특별법 제정 상담을 받습니다. 여순항쟁을 정식으로 진실회복과 명예회복으로 하기에는 증거부족일 수 있어서요. 그 당시 죽었다는 증거, 진압 받다가 죽었다는 증거로 제출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주교도소 갔다가 사망한 것은 근거가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특별법 있으면 지역 주민들이 내가 피해자라고 하면 옆집에 의해 증인으로 세울 수 있게 되는데, 특별법 외에는 이러한 증언들이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유족회에서는 따로 역사 교육 시간을 갖고 있으신가요?

네. 핵심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30여 명입니다. 역사 인식에 대한 폭이 넓어져 국보법 폐지에도 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고 교육 시간도 따로 만들려했으나, 소위 '의식화 교육'이라고



불리는 것은 좀 멀리하려고 합니다. 시민사회, 그러니까 운동권 논리로 맞춘다는 오해를 살 만한 방식들 말이지요. 유족회는 피해자일 뿐이지 그것을 저희 관점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회장님 통해서, 외부 강사를 통해 진행하려 합니다. 자체적으로 유족분들이 모여 이야기 나누시면, 점차 자료가 모이면서 '내가 이래서 피해를 당했구나' 느끼시게 됩니다. 국회 앞에서 투쟁하시다 보니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태극기 부대들이 자기들더러 '빨갱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본인들이 정체성을 파악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왜 빨갱이? 여순사건 피해자인데?' 하며 거리의 투사들이 돼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치 사안들에 대해서도 눈을 떠 가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여러 단체 중에 '통일의 길'이
여순항쟁 유족회를 지원하고 있나요?**

3년 전 시민사회와 연결될 때 유족회 사업
여수지역사회연구소의 이영일 이사장님이, 우리나라
여순사건에 독보적인 분이신데, 이분이 여순항쟁은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로 삼아야 한다며
시민단체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중에 우리도 연락을
받았고, 10여 개 단체들이 모여서 광화문 위령제를

같이 준비했었죠. 당시 전라남도 예산과 시민 모금을
같이해서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는 특별법 제정 촉구로
국회에 가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지원으로 상당히
수준 높은 공연 무대도 같이 만들었고요.

(사)통일의길에서 하는 반미 자주화 투쟁은 상시
이슈인데, 매주 화요일마다 미국 대사관 앞에 모여
행동을 합니다. 반면 유족회 활동은 상시적인
이슈라기보다 1년에 한 번 위령제 진행과 기자회견
및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들이 당장은 전부이지요.
저는 처음부터 유족회에 사무지원을 하였고, 그러면서
우리 사업 중 하나로 가져가자고 '통일의길'에 제안을
했고, 다른 시민단체들은 유족회에서 이슈가 있을 때
연대하고 있습니다.

(사)통일의길을 소개해주신다면?

2012년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총회회장) 설립.
진보진영이 시민들과 결합해서 통일의 운동
대중화를 목표로 각 대학의 민주 동호회와 연계하여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항법' 심재환
변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
동문회를 넘어서 시민들이 통일 운동의 핵심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에 주력합니다. 8·15 민족자주대회를
진행해 올 때 '청년, 노동, 농민, 여성' 부문별은
있었지만 '시민 단위'라는 것은 없었거든요. 작년부터는
'시민' 부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촛불 혁명 이후 기존의
'계급'적 성격을 벗어나 '대한민국 국민', 즉 '시민
의식'이 생겨난 것이지요.

저희가 주로 통일 분야로 활동하다 보니 통일 운동이
먼저인데, 남북 간에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는
반미 자주화를 아젠다로 하여 한미워킹그룹 반대,
방위분담금 반대, 미군 반대운동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통일의길 자체는 통일부 소속
사단법인인데 정치적인 부분에서 운동은 한정되어
있어서, 여순항쟁 유족회와 협력하고 있는 저는
'서울통일의길' 대외협력실장으로 이름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된 이후 유족회 단체는 어떤 길을 밟게 되는지요?

제주4·3과 같게 됩니다. 제정 따라서 위원회가 되면 재단이 설립되고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지역별로 유족들의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생존자는 해가 갈수록 떨어지지요. 나라에서 지원이 나오면 학술토론회를 하여 우리들만의 주장이 아닌 국민들에게 역사 인식을 밝혀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재정적으로 노인 분들의 싘짓돈으로 1년에 10만 원씩의 회비를 모읍니다. 서울유족회 회장의 자비로 거의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유족회에 아직 상근자는 없습니다. 여순사건으로 해서 별도로 알아보고자 한다면 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 이사장님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서울유족회는 이사장님의 힘으로 작년에 정식 결성되었습니다. 작년에 국회 앞에서 2번 상경 투쟁을 하였는데, 버스 대절과 식사까지 200만 원가량이 소요되었습니다. 여순 지역 유족분들은 거의 농업에 종사하시느라 농번기 때문에 서울 오시는 것이 쉽지 않아서, 특별법 제정은 거의 서울유족회 분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한 특별법 통과될 때까지는 연대할 것입니다. 저는 여순항쟁을 국가 폭력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입니다. 국가폭력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1948년 당시 이승만 단독 정부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단독정부 자체가 정부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피플을 생각하는, '인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활동하는 조직체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들이 특별법 제정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별법 제정 문제가 너무 사상적으로 흐르지 않게, 안타깝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실린 사진들은 당시 미국 <LIFE> 잡지 기자였던 칼 마이던스가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집 <1948, 칼 마이던스가 본 여순사건> 중에서)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칼 마이던스의 여순사건 사진을 전량 입수했는데, 중복을 제외하고 310여 장에 이릅니다. 수량으로 보더라도 국내와 비교해 마이던스의 사진은 압도적으로 많거니와, 여순사건의 실상을 알려주는 측면에서도 마이던스 사진의 사료적 가치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압군의 작전부터 민간인 협력자 적발, 여수 중심가 화재까지 이전에는 알기 어려웠던 사실들이 마이던스 사진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던스 사진들은 신문 기사와 공문서가 제공하기 어려웠던 수많은 세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순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평화로운 지역사회, 회복적 경찰 활동이 힘을 보탬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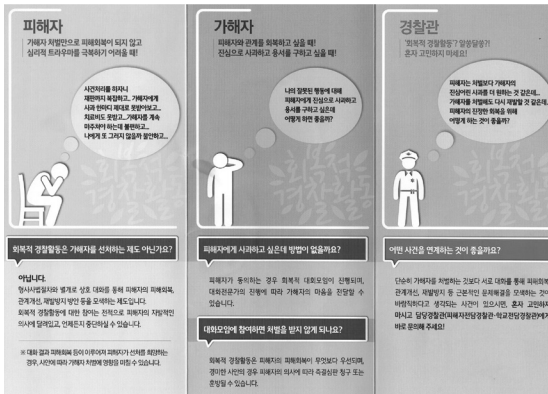
“범죄는 잘못된 행동이며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그 피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회복되고
상처받은 모두가 치유되어 더 건강한 공동체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회복적 경찰 활동〉 안내 팸플릿 중에서

이웃 간에 층간 소음이나 주차 문제로 분쟁
이 일어나거나, 절도 행위, 가정 및 학교 폭
력 등의 사건이 일어나 ‘가해자’ 또는 ‘피해
자’로 경찰서에 오면, 당사자들은 올해부터

위에 적힌 글이 담긴 팸플릿을 받고 있다.
회복적 대화 모임을 통하여 서로 간의 진심
어린 표현과 사과로 이해와 용서에 다다른
거나, 자신이 받은 고통에 관해 직접 드러내
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 〈회복적 경찰 활동〉 안내 팸플릿



2000년대 초에 한국에서 시작된 민간 영
역의 ‘회복적 정의 Restorative Justice 운동’이
2000년대 중반 공공 영역과의 공동 프로젝
트들로 이어지다, 2010년대 학교 및 지역
사회에서 회복이 필요한 다양한 곳들에 도
움을 주던 활동이 2020년에는 경찰청과 협
력하여 전국적인 ‘회복적 경찰 활동’으로도
나아가고 있다. 이전에도 강원도지방경찰청
이나 서울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그
리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에서 민간 기관
과의 연구 및 시범사업은 있어 왔다.

올해 4월 경찰청과 MOU를 체결한 '회복적 대화 전문 기관'은 총 5곳이며, 전국 230여 명의 '회복적 대화 진행 위원'들이 1년 임기로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

- (사)갈등해결과대화
- 비폭력평화물결
- 좋은교사운동
- 한국NVC센터
-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각 기관들은 '피-가해자 대화모임' '회복적 서클' 'NVC-meditation' '가족간협의회 FGC' 모델로 전국 18개 지방청 142곳 경찰서에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전체 255개 경찰서의 55.7% 비율이다.) 경찰관들도 기관 주도 하에 3일 정도의 교육과 훈련을 받고 대화 모임 참관 경험이 있다면 직접 대화 모임을 진행할 수 있다. 대화 모임은 당사자들의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작년 2019년 수도권 15개 경찰서에서 동일 기관과 6개월간 시범 사업을 운영하여 '총 95건 접수 중 84건 조정 성사(88%)'라는 결과를 얻었다. 2020년 4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총 3개월간 전국 103

건의 대화 모임이 마무리되었고 (진행 중인 사례 제외)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포럼 방식의 공유 테이블을 열 계획이라고 한다. 해당 사업 부서인 경찰청 청문감사관실 피해자전담과 담당자와 각 기관 담당자들은 월 1회 협의회를 갖고 진행 상황 점검 및 결정해야 할 것들을 논의해 오고 있다. 상처가 된 일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 수도 있었으나 이러한 대화 모임을 계기로 피해의 원상 복구 차원을 넘어서,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또한 세상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으로 나아가게 된 생생한 경험담들이 점차 들려질 길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회복적 경찰 활동이 어떠한 지점에서 지역 사회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추후의 연구 결과들도 볼 수 있다면 좋겠다.

이들 외에도 세진회, 한국회복적사법정의센터, 이화여대 회복적사법센터, 그리고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미등록 포함한) 여러 평화단체 및 실천 모임들도 회복적 정의 운동에 뜻을 함께하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번 호에는 특별히 경찰 활동에 주목하였고, 사법 영역과 교정 시설, 학교, 지역사회 등의 활동 양상도 <플랜P>를 통해 곧 다루어보고자 한다.

* 이 글은 현재 5개 기관을 대표하여 경찰청과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재)남북평화재단(비폭력평화물결) 김석봉 사무총장님의 도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적敵도 사람이다

적과 잘 지내기

살다보면 적을 만나게 된다. 적과 잘 지내고 싶지도 않지만, 적과 잘 지내야 할 의무는 없다. 단순히 생각의 차이로 생기는 문제를 넘어서, 나의 존엄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굳이 그 적과 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삶의 반경에서 계속 마주해야 할 가족이나 직장 동료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좋건 싫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의 질적인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존엄을 침해하는 적과의 관계 방식

시어머니의 방문은 나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집안일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신혼 초에 남편이 건조대에 빨래 너는 모습을 보고 내게 이렇게 말했다. “네가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남편한테 집안일을 시켜?” 그 말에 놀랐지만 당시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더구나 시어머니의 성정을 알고부터는 일들이 더 시끄러워지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 그냥 참기로 했다. “네.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형식적인 말들이 오가게 되었다. 우린 맞벌이였지만, 시어머니가 집에 방문하신 동안 집안일은 모두 혼자 해야 했고 살림에 대해 이런 저런 지적을 받아야 했다. 그럴 때마다 모멸감을 느꼈고 관계는 갈수록 불편해졌다.

존엄 침해와 자기 보호 욕구

국제 갈등해결 전문가인 도나 히스 Donna Hicks는 인간 모두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기를 갈망하며, 존엄 침해의 경험은 신체적 위협과 동일하게 느끼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서 존엄 침해가 발생하면 자기 방어적 태세(공격-회피-얼어붙기)를 취하게 된다고 한다.

나의 존엄을 일상적으로 침해하는 타인에 대해서는 적 이미지를 지니게 되고, 보복하고 싶거나 관

글 박숙영

(사)좋은교사운동 회복적생활교육 연구소장이다. 학교 안에 만연된 폭력 문화와 갈등에 대해 고민하다가 회복적 정의를 만났고, 이후 회복적 생활교육 운동을 시작했다. 현재는 25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회복적 생활교육에 관한 이론 연구와 실천, 교사 공동체 구축과 학교 컨설팅, 교사 돌봄 서클, 학교폭력대책법에 회복적 과정 도입을 위한 정책 마련과 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생물학적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하지만 인간의 삶이 단순하지 않으므로 보복한다거나 관계를 끊어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보복은 원망의 마음을 증폭시키고 더 큰 폭력을 불러올 수 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도 쉽지 않고, 관계단절로 인한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가족과 단절이 가능할까? 직장 동료와 단절하면 직장에서 효율성 있게 일할 수 있을까? 직장은 유지할 수 있을까? 머리가 복잡해진다. 하지만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타인은 나의 존엄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것이다.

안전과 생존을 위한 인간의 두 가지 본능

도나 히스의 책 《관계를 치유하는 힘, 존엄》(2013)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자신의 안전과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본능이 있다. 하나는 '자기 보호 본능'으로 자기 보호를 통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준비시킨다. 다른 하나는 '자기 확장 본능'으로 자기 확장을 통해 타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안전과 위안을 구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본능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듯이, 자기 보호 본능은 자기 개방을 통해 관계 맺고자 하는 본능과 충돌한다.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타인과의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기 보호와 관계를 동시에 지킬 수는 없을까?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도나 히스는 진정한 관계는 갈등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상처를 준 행동에 대해 존엄을 침해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대화 방식으로 '존엄 지키기 3단계'를 제안한다. 자기 보호와 관계를 동시에 지키기 위한 '존엄 지키기 3단계'를 따라 가보자.

존엄 지키기 3단계

1단계 : 존엄에 타격을 입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일시 정지 버튼 누르기

- 상처로 인해 복수하고 싶고 관계를 단절하고 싶은 자신을 인정하고, 90초 룰(‘화나고 슬픈 감정을 유발하는 화학 반응은 90초 지나면 몸 안에서 사라진다’)을 잊지 말고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 몸속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라앉을 기회를 준다.
- 상상 속 발코니에 올라선다.(상황과 떨어져서 좀 더 폭넓게 상황을 관망한다는 의미)

2단계 : 기본 반응을 복수에서 자기 성찰로 바꾸기

- ‘어쩌면 내가 소통 실패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나도 모르게 상대의 존엄을 나 또한 침해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스스로 질문해본다.

3단계 : 존엄 침해자에게 맞서기

1) 내가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는지 모른다고 여겨지면 책임진다.

“생각해보니 제가 집안 일이 서툴러서 어머니 보시기에 걱정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이라고 말하는 순간 사과의 효과는 다 사라진다.) 말을 멈추고 상대방이 대답하기를 기다린다.

2) 내가 느낀 상처에 대해 말하기

“어머니께서는 미처 몰랐을 수도 있는데, ‘네가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고 하신 말씀은 제게 상처가 되었어요. 어머니는 그 말씀이 제게 줄 영향을 미쳐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말하지 않고 넘어가버리면 어머니와의 관계가 위험해질까봐 걱정돼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떤지 어머니가 알아주기를 바래요. ……”

적도 사람이다. 괴물이 아니다.

나에게 피해와 침해가 발생하면, 원인을 제공한 타인이 적이나 괴물로 보인다. 일단 적으로 인지 되면 타인은 비난받아야 마땅한 이유가 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거되어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다. 나의 고통으로 인해서 타인도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잊게 되는 것이다. 도나 히스는, “우리가 맺는 관계에서 상호 자존감이 인정받고 존중될 때, 마음이 통하고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한다. 나의 안전과 성장은 적의 안전과 성장에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모두의 안전은 서로의 존엄이 존중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자기 보호와 관계를 모두 지키기 위해서 서로의 불편함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수정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자신의 상처를 방치하지 마라.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맞서라. 하지만 타인의 존엄을 침해는 악순환을 범하지 말라. 내가 맞서려고 마주하는 사람도 가치 있고 소중하게 대우 받아야 할 존엄한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그와 마주할 때 말문을 이렇게 시작하라.

“저는 당신과의
관계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로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
당신이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대형 재난 시대의 평화운동

트라우마의 인식과 회복을 전파하기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였다. 일의 방식의 변화, 교육의 변화 그리고 더 크게는 삶의 양식의 커다란 변화가 필연적인 시대이다. 혹자는 이를 언택트^{Untact} 시대라 칭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시대의 새로운 세계관을 '뉴 노멀^{New Normal}'이라 하며 재택근무, 노동의 유연성, 온라인의 일상화 등을 수용해야 한다고 한다. 한 발짝 더 나아가 기업과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온라인 중심의 새로운 체제 개편, 재택근무와 온라인 소통을 극대화하여 코로나19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하자고 주장한다. 또한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역량'이라 칭하며 개개인이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것을 독려한다.

이러한 뉴 노멀의 시대는 전 세계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평화 실천가들, 즉 갈등 조정자, 평화교육가, 현장 활동가들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는 시대이다. 많은 평화활동들의 기본이 곧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고, 서로의 소통을 격려하며 적이 된 상대를 이해하도록 촉진하는 일일 진데,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접촉과 연결하는 것, 모이고 소통하는 활동을 통해 전파되니 평화 실천가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활동은 제한이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대변되는 대형 재난은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 간의, 공동체 안에 연결이 중요해지는 때이다.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전염병에 확진되거나 전염의 공포를 겪는 이들이 겪는 육체적 심리적 고통이 매우 크기 때문인데,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것이다.

글 김홍석

조울컬렉티브 대표, 한국의 국제개발 NGO에서 일하던 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갈등 전환과 평화신학을 공부하였다. 버지니아주 가정법원의 조정자 자격, 트라우마의 인식과 회복 프로그램 강사(STAR) 과정을 이수하였고, 캐나다 협동조합 연구소의 방문 연구원을 역임하였다. 지금은 공동체의 협력과 갈등 해결, 회복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코칭에 매진하고 있다.

트라우마^{Trauma}란 ...

‘뚫다’라는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말로 전쟁터에서 방패를 뚫을 만큼 강력한 외부 자극이 만들어낸 마음의 상처라는 뜻이다. 트라우마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스트레스는 평균적으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트라우마라는 것은 통제 가능한 영역 바깥에 있는, 인간의 의지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 정혜신·진은영, 《천사들은 우리 옆집에 산다》 중에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환자와 치료를 도와준 간호사분들 중 절반이 1년 이후에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메르스 자체의 공포만큼 사회적인 낙인 효과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고 한다.

9월 초 현재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2만여 명에 이르고 서울의 자가 격리 경험자만 해도 10만 명에 이르는 만큼, 확진된 분들과 주위 가족, 직장 동료들이 겪는 심리적 피해는 엄청나다 할 수 있다. 물론 정혜신, 이명수 선생님 등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트라우마를 품고 사회적 치유와 정의의 회복을 위해 애써 오신 전문가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의 트라우마에 관한 연구와 치료는 최근에만 활성화되었고 그나마도 대부분 개인적 심리 치료적 접근을 중심으로 발달되었다. 더욱이 트라우마에 관한 상담을 받고자 해도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트라우마는 해당 공동체의 평화 형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트라우마의 영향에 놓인 이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지 못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분노를 표출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평화 실천가들이 먼저 대형 재난과 폭력으로 인한 공동체의 트라우마의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최소화하거나 트라우마 피해자들이 공동체에서 제2, 제3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본적인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의 이해와 공동체의 회복의 여정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작게는 평화활동가들의 커뮤니티 안에서 트라우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들, 크게는 우리 사회를 회복하는 공동체로 건설하기 위한 기획과 실천들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게 필요하다.

이 글을 읽으시는 평화 실천가분들께서 먼저 사회적 트라우마에 대한 학습 모임, 트라우마의 인식과 회복에 관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해보시기를 권한다. 이를테면,

①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가족들의 “마음챙김” 시간을 가져보기

서로의 마음 상태를 낱씨 등으로 표현해보고, 우리의 마음 낱씨를 더 맑게 하기 위해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기

② 이웃과 친구 그리고 마을 공동체를 돌아보기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정서를 교감할 수 있는 안전한 소모임을 온, 오프라인으로 실험해보기

③ 일터 공동체의 동료 챙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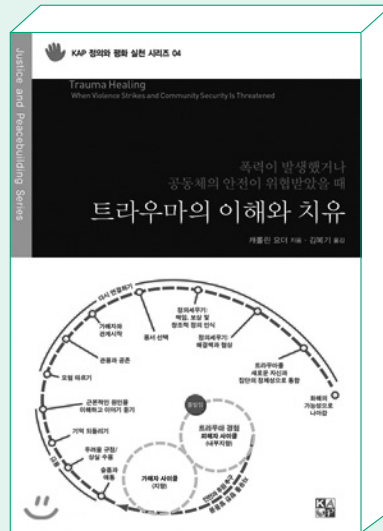
일터에서 업무 전, 후에 짝막한 연대와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기,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등을 나눌 수 있는 수다 시간 마련하기

더불어, 일찍부터 국내외에서 트라우마에 관한 실천 활동을 해 오신 분들의 책을 두 권만 소개드리고자 한다. 전문적인 상담이 아니라도 트라우마에 관한 일반적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코로나19 시대에 있어 평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일 것이라 본다.



**천사들은
우리 옆집에 산다**
글 정혜신, 진은영
창비 | 2013

**트라우마
이해와 치유**
글 캐롤린 요더
역 김복기
도서출판 대장간 | 2018



놀이가 건강하면

평화가 온다

글 김조년

한남대학교 명예교수, <표주박 통신> 주필, AVP(살을
번역시키는 평화훈련) 활동가

‘한국 전래놀이 협회’ 대표 고갑준 선생을 만나기 위해 충북 옥천군 청성면에 있는 ‘아자학교’를 찾아갔다. 아자학교는 고갑준 대표가 오래도록 바라고 연구하고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놀이 기구 스물여섯 개를 설치한, 우리나라에는 하나밖에 없는 전통놀이 학교다. 고갑준 대표와 나는 오래 전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그래서 나는 그가 우리 전래놀이를 얼마나 깊은 관심을 기울여 연구해 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래놀이를 전파해 왔는지 잘 알고 있다. 공동체 놀이를 건강하게 잘하면 모두가 다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는 벌써 1990년대 중반부터 ‘전통놀이 교실’을 운영하면서 어린이나 어른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아주 즐겁게 노는 놀이를 체험하게 하고 있다. 놀이는 사실 학습이 아니다. 그것은 삶이다. 그냥 생각과 몸으로 부딪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힘이 사람들에게 솟아나온다.

물론 놀이 중에는 매우 교묘하고 못된 생각을 지니고 어떤 사람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려는 것들도 있다. 또는 자기를 중심으로만 두는, 자기에게만 이득이 오게 하려는 놀이도 있다. 그러나 그런 놀이는 오래 할 수가 없고, 한두 번 하고 나면 양심에 찔려서 더는 그런 못된 놀이를 지속하도록 만들지 않는다. 노름이 되는 놀이도 많이 있지만, 그런 노름 놀이는 대개 그 놀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맘과 몸을 상하게 할 때가 많다. 때로는 일확천금을 노려볼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이른바 패가망신할 때도 많다. 그런 놀이들은 대개 음산하고 음험하게 이루어진다. 밝은 대낮에 뒹뒹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그 놀이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별로 기분 좋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내기 놀이는 건강한 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물론 약간의 내기는 놀이를 흥미롭게 만들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마을에서 편을 갈라 윷놀이를 하면서 이기고 질 때마다 각각 얼마씩을 추렴한다. 그렇게 모아진 돈으로 상을 차려 그 놀이에 참여했거나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과 함께 즐겨 먹고 마시는 정도의 내기 놀이는 언제나 높은 참여 의욕을 돋우면서, 서로 기쁨을 충족시킨다. 거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사생결단을 내듯이 심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놀이가 전문 직업이 되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놀이라는 차원을 벗어난다. 옛날부터 놀이를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사회에서 천대받기도 하였다. 그들은 이른바 ‘재인’이라고 불렸던 문화인들이다. 놀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만족감을 느낄 때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 놀이를 감상하는 것일 뿐, 스스로 그 놀이를 직접 체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감상하며 즐기는 놀이가 많을지, 직접 스스로 체험하는 놀이가 많을지 좀 궁금해진다. 요즘은 감상하며 즐기는 놀이가 고급 문화처럼 인식되고 유행하는 듯이 보인다. 어렸을 때 나는 시골에 살았는데, 그 당시 놀이는 거의 다 직접 하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이 노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내가 노는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그저 보면서 즐기는 것을 ‘놀이 구경 가자’고 할 수는 있어도, ‘놀자’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동네 청년들이 꾸며서 발표했던 연극이나 노래자랑도 그들은 직접 참여하는 것이었지만 어린 나에게서는 그들

의 놀이를 듣고 보는 것이었다. 농악도 어른들은 직접 참여했지만, 나는 따라다니며 듣고 보는 놀이였다. 그래도 재미는 있었다. 아무튼 그런 공개적인 놀이들은 하는 이들이나 보는 이들을 다 즐겁게 했다.

사람 그리고 놀이

놀이란 원래 여럿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누군가 피해를 받는다면 서로 싫어하고 부담을 느껴 지속할 수가 없다. 우리가 논다고 할 때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간혹 혼자 노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서로 마음이 맞거나 짝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훨씬 더 기쁘고 즐겁다. 사실, 아이든 어른이든 함께 놀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지옥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맘에 들지 않는 친구를 벌주려 할 때, 다른 아이에게 “애, 재량 놀지마!”라는 말을 한다. 그 말을 하는 아이가 권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으면 그 말은 작동한다.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는 동무들과 함께 놀 수 없는 큰 벌을 받는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서나 풍성한 놀이가 있어야 한다. 마을이든 어디든 노는 아이들의 소리가 사라지거나 어른들의 건강한 놀이 장면이 없다면 적막하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맘껏 즐겁게 뛰어놀 수 있어야 한다. 아니,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놀 수 있는 놀이가 많이 보급되고 실천되면 참 좋겠다. 이러한 때 물론 놀잇감과 놀이 공간이 안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더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나치게 규모가 커서 위화감을 주고 위압감을 주는 놀잇감들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3천 개가 좀 안 되는 정도의 유원시설이 있다고 한다. 그곳들은 어디를 가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모습,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다. 대부분 상업성을 띠 것이다. 그런 곳에서의 ‘놀이’는 사이버 놀이가 아닐까? 그러한 놀이 환경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역에 따라서, 만든 시기에 따라서, 공원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놀이 기구도 다양할 필요가 있다. 그렇더라도 너무 많은 전기 에너지를 써야 하는 놀이 기구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놀이 기구가 전기로 움직이며 자동화될수록 노는 아이들의 창의력은 낮아지게 마련이다.

또, 이상하리만치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를 다른 문화권에서 들어온 놀이 기구들이 몽땅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와 옛날부터 일상으로 놓고 지내던 놀잇감들은 마치 민속촌이나 가야 볼 수 있는 일종의 박물관 물건으로 취급되는 형편이 너무나 많다. 이런 점은 크게 달라져야만 한다. 우리 아이들의 놀이 공간에 전통놀이 기구와 놀잇감이 더욱 늘어나야 하고, 가능하다면 전기를 쓰지 않는 놀이 기구가 갖춰지면 좋겠다.

놀이 안에서 평화를 배우다

앞으로 놀이 문화가 자연과 함께하면서, 노는 아이들이 스스로 연대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 이미 어른들이 구상해놓은 놀이터와 놀이 기구가 아니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즐기는 놀이터 구성과 놀이 기구들이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 그래서 놀이 규칙

함께 구르고,
함께 기다리고,
함께 멈추는 놀이를 통해

우리는 이미 서로 힘을
균형 있게 배분하면서

서로가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을 배운다

이나 방법 역시 노는 아이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느슨하게 두면 좋겠다. 이미 만들어진 놀이 기구를 가지고 노는 것 말고,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고 고안하여 함께 노는 놀이가 많이 개발되면 좋겠다. 이때 어른들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숲 유치원 어린이들이 숲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숲에서 마냥 놀고 텅굴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일단 숲에 가면 멀찍이 거리를 둔 채 안전에 대한 것만 철저히 살피면서,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자연을, 숲을 직접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마냥 기다려주는 자연의 지혜와 법칙을 따를 수 있도록 하려면, 또 자연 속의 무수히 많은 생명체들을 아이들이 직접 느끼게 하려면,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놀 때 어른들은 완전히 물러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도 자연 속에서 자연의 흐름을 경험하여야 한다. 그런데 관심이 많은 어른일수록 아이들을 그냥 두지 못하고 개입하여 가르치고 선도하려고 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원래 인간은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살았다.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맘껏 놀았다. 그런데 지금은 자연을 떠나 만들어진 도시에서 살다 보니 자연을 몸서 그리워한

다. 그래서 자연을 모방하고 자연과 친하게 지내려고 한다. 그러면서도 인위적으로 조작된 자연 속에서 조작된 자연스러움으로 억지로 놀게 할 때가 많다. 그래도 아이들은 잘 놀지만, 제한된 틀 속에서는 창의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는 없다. 아이들 스스로 놀게 할 때, 여러 번 반복하여 실수하고 성공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아주 놀라운 창의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중 하나가 놀이는 서로 다른 사람과 어울려 놀 때 가장 기분이 좋고 즐겁다는 것을 발견하는 일이다. 이것은 놀기 위해서는 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따돌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누군가를 따돌리면 내가 함께 놀 상대가 없어질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아이를 배려해서가 아니라, 내가 놀기 위해서는 다른 아이를 따돌릴 수가 없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그 스스로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존재다. 누군가가 배려를 해주면 또 누군가는 배려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일만이 있는 것이다. 건강한 놀이란 이렇게 상호 보완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하면 놀이 동무를 찾아서 함께 구르고, 함께 기다리고, 함께 멈추는 놀이를 통해 우리는 이미 서로 힘을 균형 있게 배분하면서 서로가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을 배운다.

아주 간단한 놀이로, 그네를 뒀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멈출 수가 없다. 쌍그네를 뒀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그때는 함께 뛰는 다른 동무의 힘을 빌려 내가 나가고 내려간다. 그네를 멈추는 것 역시 기다려야 하고 어느 정도 힘을 조절하지 않으면, 전기를 꺼서 멈추듯이 금방 서지 못한다. 시작과 한창 뒀을 때와 멈출 때도 자신이 어느 정도 조절하지만, 자연스럽게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널뛰기도 마찬가지다. 몸무게가 각각 다른 사람들이 널판의 이쪽과 저쪽에서 뒀을 때, 내가 뛰고 싶어서 높이가 뛰어오르는 것이 아니다. 나를 띄워주는 상대방의 내리누르는 힘과 속도가 나를 솟구쳐 올린다. 그리고 내가 솟구쳤다가 내려서면서 널판을 내리누르는 힘과 속도로 인해 상대방이 또다시 솟구쳐 오른다. 멈출 때도 내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서로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널을 뛰거나 그네를 타는 것도 역시 깊은 조화력이 없으면 제대로 놀이가 되지 않는다.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

가끔 놀이를 하다가 싸움판으로 바뀔 때도 있다. 그때는 함께 놀던 아이들이 “야, 이걸 놀이야! 놀다가 왜 이래?”라고 말한다. 무언가 심각해질 조짐이 있을 때는 누군가가 “야, 이제 그만 놀자.” 하면 끝난다.

따지고 보면 인생도 한판 놀이다. 공부도, 가르침도, 배움도, 시험도,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하는 것도 놀이로 하면 다 재미가 있다. 정치도 경제도 학문도 전쟁도 국제관계도 놀이로 하면 재미있을 것이다. 그 놀이에서 졌다고 죽을 일도 아니고, 원수질 일도 아니다. 다음날 만나서 다시 해보면 된다. 그러다 보면 어제 잘하던 아이가 오늘 뒤쳐질 수 있고, 어제 못하던 아이가 오늘 멋지게 해낼 수도 있다. 그렇게 서로 부추기면서 한판 흐드러지게 노는 인생, 얼마나 멋이 있을까? 놀이에서 술래는 영원한 술래가 되지 않고, 막는 자는 언제나 막기만 하지 않는다. 때로는 막는 자를

피해서 제비처럼 달아난다. 모든 인생 놀이는 그네를 뒤편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반복한다. 널을 뒤편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한다. 이때 모든 것이 다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치도 놀이로 알면 참 좋겠다. 국제 정치나 국내 정치도 놀이로 생각하면 아주 재미있을 것 같다. 정당 정치, 핵무기 개발이나 군수 산업, 아파트 투기나 주식 투자도 전부 '깊은 조화력이 필요한' 놀이로 보면 어떻게 될까? 종교도 인종도 계급도, 지배와 피지배도 놀이에서 잠깐 맡은 역할 분담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한번 모은 재산을 대물림하려고 발버둥 칠 일도 없고, 한번 잡은 권력을 영원히 누리려고 하지도 않을 텐데 말이다. 거기에 인생 전체를 걸듯이 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죽을 때 몽땅 싸들고 가거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던가?

한판 신나게 땀 흘리면서 놀다가, 때가 지나서 뉘엿뉘엿 해가 서쪽으로 지면, “애들아, 오늘 재미 있었다. 내일 다시 만나 이어서 놀자!”고 말하면서 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달이 뜨거나 어둠이 짙어지면, 낮에 놀던 것과는 전혀 다른 놀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놀이를 바꾸어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인생은 놀이다. 역사도 놀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꾸리는 삶이나 사회가 놀이로 한판 벌어지면, 우리가 사는 지금 여기는 자연스럽게 평화 세상이 되지 않을까?

〈평화저널 플랜P〉를 위하여

사람의 얼굴을 되살리는

평화 저널리즘

글 김가연

학부에서 신학과 정치학을 공부하고 미국 이스턴 메노나이트 대학교에서 갈등전환 석사를 했다. 평화세우기(peacebuilding)를 한국에 알리기 위해 리사 셔크(Lisa Schirch)의 체계적인 평화세우기(Strategic Peacebuilding, 국내에서 《전략적 평화세우기》(2014, KAP)로 출간)와 존 폴 레더락(John Paul Lederach)의 《도덕적 상상력(Moral Imagination)》(2016, 글항아리)을 번역하였으며, 현재 '피스모모'에서 평화 저널리즘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갈등 전환, 평화 저널리즘, 소통'을 키워드로 저널리즘을 통한 평화세우기의 비전을 키우는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생소한 전염병이 처음 유행한 지도 어느덧 6개월이 넘어간다. 그 사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코로나19’라는 이름이 붙었고,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혹은 ‘뉴 노멀 New normal’을 준비하는 여러 행사들이 줄지어 열렸다. 물론 ‘물리적 거리두기’를 위한 온라인 회의 형식이었다. 서점에는 ‘언택트Untact’를 비롯하여 코로나19와 관련된 책들이 줄지어 나왔다. 아이들은 학교나 유치원을 가지 못하고 매일 집에서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거나 심심함을 참지 못해 온 집안을 굴러다닌다. 그런가 하면 무심코 대문을 열어젖혔다가도 ‘앗, 마스크!’ 하고 집으로 돌아 들어가는 일이 종종 생긴다. 몇 달 전만 해도 카페에 가면 곧 코로나19에 전염될까 손이 떨리던 것이, 이제는 요령껏 카페도 가고 쇼핑물도 간다.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유행이었던 것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여파가 상당히 크다. 감염자이나 무증상일 수 있다는 사실이 개인의 거리를 상당히 크게 떨어뜨렸고, 어떤 방식으로 전염이 되는지조차 끝까지 밝혀진 바가 없어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일상이 무너졌고, ‘늘 해오던 방식’으로는 더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이 속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웬만한 모임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종교 모임을 비롯한 대부분의 만남이 자제되었다.

코로나19로 어느 영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지 따져보기는 쉽지 않다. 다만, 평화를 위해 일하는 활동가들과 시민단체들도 코로나19 시대에 허덕이는 몇몇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평화교육 영역에서 일하던 단체들은 한두 달 ‘전면 교육 취소’로 인한 아픔을 버텨야 했고, 시민 대상 공론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들이 상반기에 거의 열리지 않았으며, 시민의 목소리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로겠지만, 코로나19로 평화의 영역에 스며있던 사람의 자리가 여실히 드러났다.

많은 것이 새로워진 시대에 <평화저널 플랜P>는 그 첫 걸음을 ‘사람People’에서 시작한다. 매 호마다 주제 키워드를 정하기로 한 것인데, 첫 얼굴이 될 주제를 사람에서 찾은 것을 보면 ‘평화는 사람이다’라는 명제가 주는 무게를 편집위원 모두가 진지하게 여겼던 것 같다. ‘평화는 사람이다’라는 문장을 곱씹어보면 두 가지 의미가 튀어나온다. ‘평화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라는 의미가 먼저이고, ‘평화는 곧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그다음이다.

평화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평화를 위해 일한다고 하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대단한 일을 상상하기 쉽다. 하지만, 평화를 위해 맨 처음 그리고 매번 해야 하는 일은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다. 평화저널을 시작하고자 했을 때도 그랬다. 함께 생각하고 힘을 모을 몇 사람을 모색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번갈아 가며 만남을 가졌다. 그리고 창간을 기념하며 몇 사람을 모아 창간 포럼을 열었다. 좀 더 거시적인 이슈를 생각해볼까. 2020년 7월 27일은 한국전쟁이 정전 협약을 맺은 지 70년이 되는 해다. 이를 기억하며, 여러 국내외 시민단체들은 한국전쟁을 끝내자는 ‘종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을 구상하며 국내외 시민단체 대표 몇이 모였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서명 운동으로 종전 캠페인에 지

지를 보여주고 있다. 평화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 몇이 모여 발화되고, 그렇게 붙은 평화의 불씨는 사람들이 모일 때 지속된다.

나는 한 주에 한 번 출근하는 평화교육 단체 ‘피스모모’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엄마 모임을 시작했다. 어릴 적 평화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주 양육자 ‘엄마’들이 평화를 고민하며, 일상을 평화로 채워나가는 연습을 한다. 한 달에 한 번, 값진 두 시간을 육아와 평화를 고민하며 엄마이자 피스빌더 peacebuilder로 사는 삶을 꿈꾼다. 엄마가 어떻게 평화에 일조할 수 있을까? 엄마는 일상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서 돌보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아이들이 일상의 폭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평화를 상상하는 감수성을 길러줘야 한다. 몇 달 전 6살 된 꼬마아들이 ‘진짜 진짜 재밌는 전투기 책’을 사달라고 했다. 피스빌더로서 전투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고서 관심 갖는 일을 제한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내가 설볼리 세상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까 고민이 됐다. 결국 ‘쿨하게’ 전투기 책을 사두고 ‘나도 이참에 전투기 공부를 해야지’ 다짐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너무나 흥미롭게 전투기 책을 탐닉하는 아들에게 한마디 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너, 전투기가 미사일 쏘는 거 알지?”

“어, 진짜 진짜 멋지잖아. 미사일이 여기서 나온대!!!”

“근데 그 미사일은 어디로 갈까? 미사일이 쏘 나오면 우리가 사는 아파트 같은 데 떨어져서 사람들이 다 죽는 거야.”

동심 파괴자일까. 하지만 전투기는 결국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줘야 했다. 아이들이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노는 총이나 칼, 전투기 등이 무슨 의미인지 숨겨진 그림 전체를 보여줘야 할 의무가 엄마에게 있다.

평화는 곧 사람이다.

전쟁에서 사람의 얼굴이 지워졌을 때, 평화의 얼굴 또한 영원히 감춰진다. 매년 서울에서 열리는 ‘무기 박람회’ ADEX,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는 전투기를 사람의 죽음과 상관없는 멋진 비행기로 둔갑시킨다. 엄청나게 빠른 전투기가 상공을 가르며 에어쇼를 선보이고, 전투기 체험도 가능한 이곳에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한다. 그 길목에서 평화단체들은 “죽음의 거래를 멈추라”며 방위 산업이 감춘 사람의 얼굴을 들추고자 한다. 지난 1월, 미국이 이란의 거센 솔레이

마니(Qasem Soleimani) 사령관을 드론으로 피살했다. 미국이 중동의 권력을 차단하는 오만한 재판관 역할을 감행한 데에 대한 놀라움도 컸지만, 그 방식이 영화에서만 보던 무인 폭격기를 이용한 암살이었다는 사실에 더욱 경악했다. 드론 조종사는 암살 현장이었던 이라크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 내 미군 기지에서 원격 조종으로 '목표물을 제거'했다. 사람이 사람을 직접 죽이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게임을 하듯 전쟁을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엄청난 거리가 생겼다.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이제 기술이라는 커다란 장애물로 가려져 버렸다.

'평화는 곧 사람이다'. 전쟁과 폭력의 사건 뒤에 가려진 사람의 얼굴이 드러날 때, 평화의 가능성이 열린다. 전투기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라는 것, 버튼 하나로 드론에서 떨어진 미사일은 사람을 향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시대의 많은 언론들은 전쟁과 폭력을 조각내어 소비하기 바쁘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피살당한 사건을 보도하면서도, 전후 맥락을 담은 이야기를 보도하기 보다는 무인 드론이 현실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다. 언론은 때로 전쟁을 엔터테인먼트로 소비하고, 갈등에 불씨를 더한다. 이런 '전쟁 저널리즘'은 내리막으로 흐르는 강물처럼 아무 힘을 들이지 않아도 물살을 더해 흘러간다. 그러나 평화에 기회를 주는 저널리즘은 내려오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요한 갈통(Johan Galtung, 1930~)은 1960년대에 '평화 저널리즘'을 소개했다. 언론이 전쟁을 보도하는 방식이 갈등을 조장할 뿐이라며 '전쟁 저널리즘'이라고 비판했고, 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평화 저널리즘'을 주창했다. 이후 제이크 린치(Jake Lynch, 1965~)를 포함한 몇몇 언론학자들이 '평화에 기회를 주는 언론'을 기조로 '평화 저널리즘' 영역을 키워가고 있다. 평화 저널리즘이 제안하는 언론 보도의 원칙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도 갈등의 피상적인 결과만 소비적으로 보도하기보다 갈등의 근본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맥락을 보도해야 한다는 원칙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뉴스를 점점 빠르게 조각내어 소비하는 요즘 시대에, 조금은 느리지만 갈등의 전후를 모두 돌아보는 보도는 평화에 길을 내어준다. 갈등을 맥락과 함께 입체적으로 이해하면, 갈등을 더 나은 상태로 전환할 지점들이 늘어난다. 기괴한 악마로만 보였던 '적'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가온다. '사람'의 얼굴을 살리는 평화 저널리즘이 필요한 때다.

인공 지능 시대에는 사람이 하는 많은 일들을 로봇이 대신한다고 한다. 그러나 일상을 살아가고, 관계를 맺고, 평화를 상상하는 일은 사람의 손에서 떠나기 어려운 일들이다. 8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상상하며 평화저널을 시작하는 일도 '사람'에서 시작했다. <평화저널 플랜P>에 담긴 무수한 이야기들은 다양한 색깔을 띠 테지만, 그 중심은 사람을 향하길 바란다. 평화는 사람이고, 사람이 평화다.



〈조조 래빗〉²⁰¹⁹이 이야기하는 평화

벧속에 나비 떼를 품고 호랑이 눈을 보는 것

글 최은 영화평론가

의문투성이의 세상을 영화로 이해하고, 영화가 던지는 질문들을 놓고 대화하는 일을 즐기려는 영화 평론가. 모두를 위한 기독교영화제 부집행위원장과 수석프로그래머로 일하고, 라디오 〈CBS 광장〉 “최은의 문화칼럼”에 출연한다.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에서 영화이론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조 벧츨러, 10세. 매우 힘들겠지만 이제 진짜 남자가 되는 거다.”

나치 소년단 훈련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제복을 갖춰 입고 집을 나서는 조조로연 그리핀 데이비스는 짐짓 비장하다. 캠프에서 애꾸눈 ‘캡틴 K’ 샘 록웰은 위대한 아리아인들은 뱀처럼 영민하고 늑대처럼 강인하며, 표범처럼 용감하고, 독일인의 영혼을 지녔다고 가르쳤다. 그러니 나치 소년단이라면 토끼 한 마리의 목을 비틀어 죽이고 발로 밟는 일 따위는 싱겁게 해내야 했다. 하지만 조조는 차마 그럴 수 없어서 토끼를 놓아주려고 땅에 살짝 내려놓았다가 그날로 겁쟁이 토끼, ‘조조 래빗’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게다가 이 사건을 만회하려고 용감하게 수류탄 투척에 뛰어들었다가 부상을 당해, 조조는 얼굴에 금이 간 ‘못생긴’ 아리아인이 되었다.

얼굴에 흉터가 생겼고 다리를 절뚝거리는 조조를 엄마 로지스칼렛 요한슨은 여전히 ‘내 아기 사자’라고 부른다. 아빠 사자는 전쟁에 나갔고, 누나 사자 ‘잉거’는 일찍이 사망한 터였다. 조조는 용감한 사자는커녕 웬만한 토끼도

못되는 걸로 소문이 나버렸지만, 아직은 괜찮다. 아빠를 대신하기라도 하듯, 위대한 히틀러 동지^{타이카 와이티티}가 찾아와 상상의 친구가 되어주고 토끼는 원래 용감하다고 격려도 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조조는 자기네 다락에 유대인 ‘귀신’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죽은 잉거의 친구인 엘사^{타미나 맥킨지}를 조조의 엄마가 숨겨준 것인데, 그 사실을 발설하는 순간 조조는 물론이고 엄마까지도 위험해진다. 엘사는 도리어 협박한다. 그리하여 전쟁광 히틀러의 총애를 받는 꼬마 나치와 평화주의자 레지스탕스 엄마와 유대인 소녀가 한집에 산다. 심지어 간간히 히틀러가 직접 출몰하는 집이다. 이들은 계속해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조조 래빗〉은 크리스틴 뢰넨스의 《갈힌 하늘 Caging Skies》을 원작으로 한 영화로, 스칼렛 요한슨이 독일군 장교의 아내이지만 ‘자유 독일’을 위해 나치에 저항하면서 어린 나치인 아들을 보호하는 매력적인 괴짜 엄마

호랑이들이
사라지고,

간혀 있던
토끼 두 마리는
문 밖으로 나와
몸을 흔든다.

를 연기한다. 연출을 맡은 뉴질랜드 태생 타이카 와이티티는 모계 유대인 혈통이기도 한데, 이 영화에서 히틀러 역할로 직접 출연했다. 와이티티 감독은 이 영화에서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독일의 한 가정을 언뜻 동물 이미지를 빌려 풍자 그득한 향연으로 그려냈다.

사자나 뱀, 늑대와 표범뿐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고 조조가 물었을 때, 엄마 로지는 뱃속에 나비 떼가 펼쳐이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진다고 답한다. 로지는 또 두려움에 떠는 잉거에게 어른이 된다는 건 호랑이 눈을 똑바로 보는 거라고 알려 준다. 나비와 호랑이 눈은 영화 속 결정적인 순간들에 출몰하는데, 조조가 광장에서 파란 나비에 이끌려 걷다가 마침내 '호랑이 눈'을 똑바로 보던 날의 장면이 특히 탁월하다. 이날 조조는, 전쟁광 '호랑이들'이 저질러놓은 마지막 폭력의 흔적을 무섭게 마주해야 했다. 조조를 대신해 카메라가 고개를 돌리면, 주변 집들의 지붕 창문들도 호랑이 눈의 모양으로 조조를 내려다보고 있어 더욱 섬뜩해진다.

'똑바로 보는 것'은 이처럼 <조조 래빗>의 중요한 주제이다. 그리고 보면 '캡틴 K'가 한쪽 눈을 잃은 것에도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가 실명한 것이 한쪽 눈뿐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남은 한쪽 눈으로는 볼 수 있었기에, 그는 가끔은 옳은 편에 설 수 있었다.

그러므로 <조조 래빗>은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 영화는 아니다. 히틀러의 잔혹함을 다루는 이야기도 아니다. 한 소년이 뱃속의 나비 떼를 느끼는 이야기고, 한 소녀가 호랑이 눈을 보게 되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고대했던 한 엄마가 자신의 아들에게, 또 잃은 딸을 대신해서 딸의 친구에게 호랑이 눈을 마주보게 해주는 이야기이다.

조조는 소원대로 유대인을 '한 마리' 잡아 히틀러에게 바치거나 토끼의 모가지를 꺾는 방식으로 '진짜 남자'가 되지는 않는다. 심지어 머리에 총구멍을 내고 다시 나타난 히틀러의 영덩이를 창문 저 아래로 걸어서 버린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결코 폭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세계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폭력을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했지

똑바로 쳐다보기를 두려워하거나 피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조조는 나치에게 배운 대로 유대인 엘사를 뿔 달린 괴물로 그려놓고 단검을 겨누었는데, 바로 그 엘사가 '사람'으로 보이면서부터 조조와 엘사의 기묘한 동거는 곧 사랑이 되고 연대가 되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나 폭력을 휘두르던 호랑이들이 사라지자, 갇혀 있던 토끼 두 마리는 문 밖으로 나와 몸을 흔든다. 가슴에 나비 떼가 펄럭이는, 자유인의 춤이었다. "전쟁 중에 사랑타령이라니, 전쟁 중에 춤이라니!" 흥분하는 조조에게 자유로운 사람만이 춤을 출 수 있다며 로지가 가르쳤던 바로 그 춤. 따라서 이 마지막은 히틀러의 총아였던 조조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엄마 로지의 방식으로, 즉 폭력이 아닌 사랑과 두려움을 극복한 자유의 모습으로 평화가 찾아왔음을 알려주는 장면이 되었다. 그 한 걸음을 내딛기가 그렇게 어려웠다. 하지만 조조와 엘사는 해냈다.

날 선 토론이나 이론보다, 또는 강력한 훈련보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건 혹시 엘사처럼 '뿔 달리지 않은(사

실은 뿔 같은 거 달렸을 턱이 없는) 유대인' 한 사람을 곁에 두는 일이 아닐까. 전쟁 막바지의 독일에게 '아이를 잡아먹고 개와 섹스를 하는' 종족이 이제 유대인이 아닌 소련군과 영국군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언제나 혐오와 배제를 정당화하게 만드는 각자의 '유대인'이 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웃이나 집단, 이방인, 타종교인과 난민들일 수도 있고, 성소수자나 여성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 시대의 '유대인'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미지화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 이미지들을 학습하거나 내면화하고 있는지 면밀히 지켜볼 일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진짜 어른이 될 수 없다.



막다른 길에서 평화를 외치는 ‘길밴’

글 김성한

평화의 문화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은 김성한은 메노나이트중앙위원회(MCC)에서 평화교육가로 일하고 있다. 오랫동안 코드셋이란 밴드에서 노래와 기타를 담당하고 있다.

주류(main stream)와 비주류의 차이는 무엇일까? 2011년부터 활동한 ‘길가는 밴드길밴’의 음악을 주류와 비주류로 가르는 귀로 듣는다면 <언제나, 전부>(2020)라는 앨범에 담긴 노래들은 철저히 비주류의 음악이다. 음원을 다운받거나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 시대에 길밴은 보란 듯이 ‘가내수공업’ 방식으로 제작된 CD를 발매했다. 이들의 음악이 비주류로 분류될 또 다른 이유는 ‘길가는 밴드’라는 이름대로 지난 10년간 사회의 비주류이다 못해 ‘막다른 길’에 내몰린 사람들을 소재로 하고, 또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노래해 왔기 때문이다.

길밴의 노래는 그 노래가 불렀던 자리, 그들의 연주와 노래의 첫 번째 청중들이 앉은 자리로 우리를 이끈다. 그 자리에는 물론 그곳을 지키는, 혹은 떠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들의 노래는 애가(哀歌)다. 앨범에 담긴 노래 몇 곡을 살펴보자.

“기억해줘요 울어도 좋으니 비록 떨어져 있어도 마음엔 언제나 함께이니 기억해줘요”라고 속삭이듯 노래하는

두 번째 트랙 ‘이제는 안녕’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멈출 수 없는 기억을 노래한다. 기억하기를 멈추는 순간 그 아이들의 존재도, 그 비참한 사건도 없던 일이 될 것 같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해야 하는 이 침몰하는 세상은 얼마나 슬픈가?

다섯 번째 트랙 ‘다시 빛날 우리’를 들어보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2006년 3월 1일부터 2018년 7월 21일까지 4526일 동안 계속되었던 KTX 해고 여성 승무원들의 복직 투쟁이 있었다. 20대부터 40대까지,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빛날 시기에 너무 오랜 시간 투쟁의 자리를 지켜야 했던 이들이다. 부당함에 맞서는 이 싸움이 오래 지속되는 동안, 함께하던 동료들 서로가 아픈게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다행히) 빛이 안 보일 때도 기적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KTX 승무원들은 해고 12년 만에 정규직으로 복직한다!

여덟 번째 트랙 ‘75m 위’는 또 다른 애가다. 2011년 부

산 영도 한진 조선소 35m 상공의 85번 크레인에 올라가서 309일을 싸웠던 김진숙 지도위원 앞에는 같은 크레인에서 목을 뺐던 김주익 노조위원장이 있었다. 그 뒤로도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했다. 크레인, 굴뚝, 교통카메라 철탑으로, 노동자들이 올라야 할 곳은 점점 높아져 갔다. 합의서 한 장을 만들기 위해 75m 위 공장 굴뚝에서 426일을 보낸 파인텍 노동자들을 올려다보며 만들고 부른 이 노래는 주류가 보여주지 않는 다른 세상을 다른 높이에서 음악 한 곡으로 보여준다.

‘75m 위’가 전설적인 밴드 핑크 플로이드(Pink Floyd)에 대한 오마주로 반짝이는 동안 네 번째 트랙 ‘항가’와 일곱 번째 트랙 ‘막다른 길에서’는 길밴이 부르고 싶은 평화의 노래가 무엇인지 들려준다. 길밴은 지난 10년 동

안 그들의 노래가 필요한 장소를 찾아갔다. 집으로,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막다른 길로 내몰린 이들의 현장에서 “다른 하루를 마감한 당신을 잊지 않겠다”며 “검은 리본을 단” 탄식의 노래로 함께했다. 눈물 나고, 빼앗기고, 쓰리고 아픈 이들에게 “스스로 향기를 내고 있는 당신이 꽃”이라고 위로한다.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애도하고 탄식하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그럼으로써 서로가 함께 나누고 연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애가를 불러 왔던 길밴은 어느덧 막다른 길에서 “평화가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노래한다. 그 막다른 길에서, 이제 길밴은 평화를 만들기 위한 여정을 다시 또 시작하는 것 같다.

평화의 가치와 그것을 지켜내는 과정이야말로 주류라고 생각하는 플랜P의 독자들에게, ‘평화가 길이다, 다른



무기는 없다'라고 노래하는 무명 밴드의 '오래된 신곡' 들을 소개했다. (활동 10년 만에 첫 앨범이다!)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평화의 문화가, 평화의 노래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플랜P의 독자들에게는 평화의 향기를 내는 '길가는 밴드'의 노래가 주류일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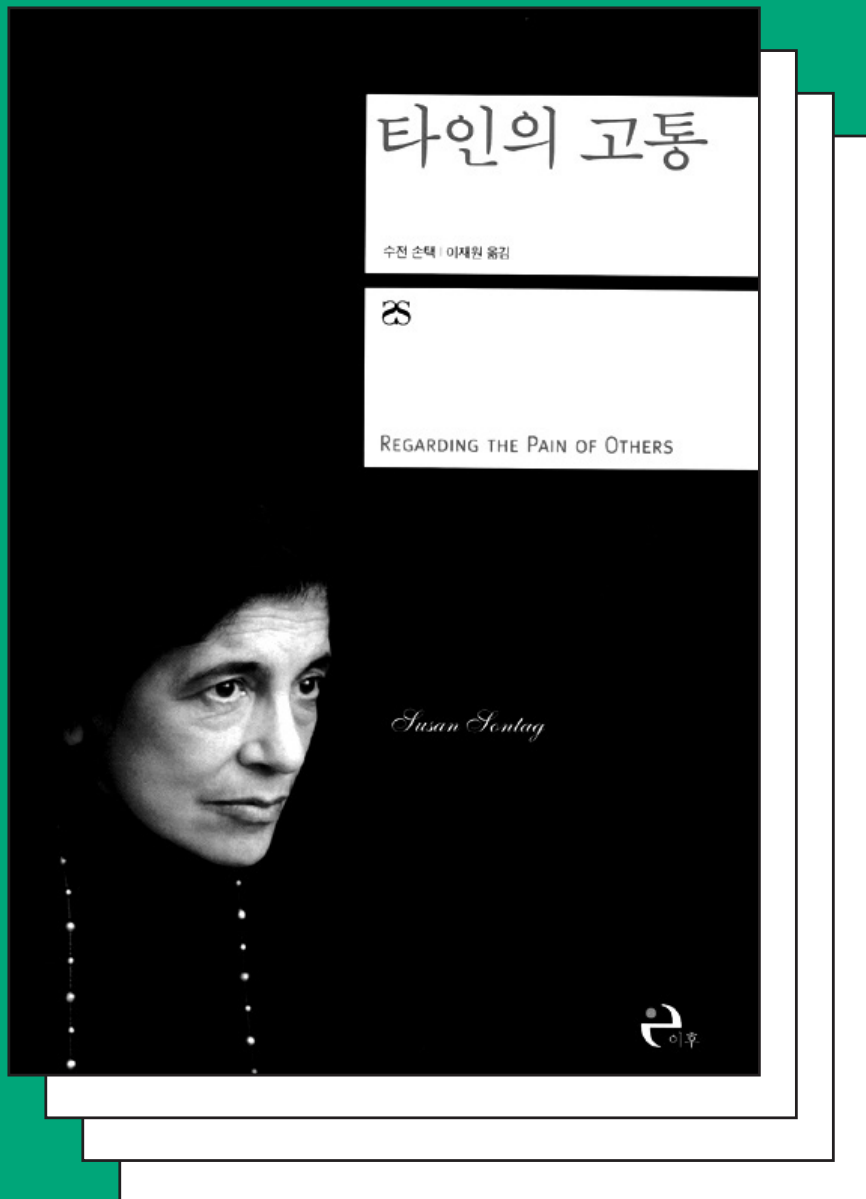
Youtube에서 '길가는 밴드'의 뮤직비디오와 음원을 감상할 수 있다.

[뮤비] 75m 워 www.youtube.com/watch?v=bmDyt0mr1Kw

평화가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프레임 바깥의 진실에 다가선다는 것

수전 손택의 《타인의 고통》

글 김유승

국어국문학과 신학을 전공하고, 제주에서 생명·평화운동과 공동체 운동에 함께 하였다.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준비 중이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교육부 목사로 재직하고 있다.

《타인의 고통》(2003)은 예술평론가인 수전 손택 Susan Sontag, 1933~2004이 저술한 마지막 작품으로, 1977년에 발표됐던 그녀의 에세이 모음집 《사진에 관하여》와 함께 ‘사진’이 주는 이미지에 매혹되어 구경꾼이자 피사체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타인의 고통》(2003)은 예술평론가인 수전 손택 Susan Sontag, 1933~2004이 저술한 마지막 작품으로, 1977년에 발표됐던 그녀의 에세이 모음집 《사진에 관하여》와 함께 ‘사진’이 주는 이미지에 매혹되어 구경꾼이자 피사체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사진에 관하여》에서 손택은 1839년 사진이 발명된 이래 사진이 우리 세계의 모든 것을 피사체로 포착하여 대상화하고 사물화함으로써 자본 시장의 소비품으로 변모시켜 왔음을 지적하고, 그 결과 사진이 현실의 단순한 기록이 아닌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 왔음과 인간이 무엇을 경험한다는 개념 자체도 ‘찍는

다’, ‘바라본다’는 의미로 축소되어 왔음을 꼬집는다. 그로부터 30년 뒤 손택은 《타인의 고통》을 통해 이미지로 뒤덮인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고통마저도 하나의 스펙터클(웅장하고 화려한 장면)로 소비되는 현실에 아파한다. 특히 그녀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잔혹함의 집합체라 할 수 있는 전쟁을 주제로 고통의 도상학을 세밀하게 추적하며, 고통 받는 육체가 찍힌 사진을 보려는 욕망은 나체가 찍힌 사진을 보려는 욕망만큼이나 격렬한 것이라 말한다. 이러한 인간의 관음증적인 욕망과 소비를 자극하기 위한 상업적 욕망이 어우러져 신경에 거슬리고, 소란을 불러일으키며,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드는 충격적인 이미지들이 생산되었고, 작가들은 더욱 극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연출도 서슴지 않았다.

여기서 손택은 사진이 애초에 객관적이라는 공인을 받아왔으나 사실상 그것은 누군가의 특정한 관점을 재현할 뿐임을 상기시킨다. 즉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구도를 잡는다는 것이며, 구도를 잡는다는 것은 작가의 의도에

의해 무언가를 배제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사진을 통해 소비되는 현실이란 재현된 몽타주와 다르지 않다. 이처럼 재현된 이미지를 통해서 현실을 확인하고, 경험을 고양하려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오늘날 디지털 영상 매체의 발전과 더불어 하나의 익숙한 일상이 되었다.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스마트 기기를 손에 들고 화면을 응시한 채로 음식을 먹고, 대화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이미지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세상과 소통한다. 이미

지는 이제 고정된 하나가 아닌 쉴 새 없이 움직이고 끊이지 않는 이미지의 연속체로서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 《타인의 고통》에서 손택은 사진뿐 아니라 영상 매체인 텔레비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데, 그녀는 텔레비전의 속성이란 “이미지로 사람들을 자극하여 주의력을 흠뜨리고 끊임없이 채널을 돌리게 하여 결국 따분하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라 직설하고, 다음과 같은 비평을 덧붙인다.

《사진에 관하여》가 출판된 이래로,
수많은 비평가들은 텔레비전 탓에 전쟁의
고통이 하룻밤의 진부한 유흥거리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해 왔다.

한번 충격을 줬다가 이내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종류의 이미지가
넘쳐날수록, 우리는 반응 능력을 잃어가게 된다.
연민이 극한에 다다르면 결국 무감각에
빠지기 마련이며, 그래서 통속적인
처방이 내려지는 법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정작 무엇인가?

- 《타인의 고통》 중에서

이미지의 범람 속에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 결국 인간의 고통마저도 한낱 가십거리로 소비하게 만드는 현실에 대한 고발, 더불어 그녀가 전하는 더욱 불편한 진실은 우리 모두가 연민이라는 이름의 가면 뒤에 숨어 자신들의 도덕성과 무고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안도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연민은 어느 정도 뻔뻔한 반응’이라고 말하는 그녀의 언설은 낯선 동시에 비수처럼 아프다.

그러나 우리의 치부를 들켰다고 해서, 손택이 말하는 ‘연민’을 ‘동정’으로 슬쩍 바꿔 읽으려는 시도는 무익하고도 기만적이다. 우리의 도덕적 고상함을 증명해주던 ‘연민’이라는 말이 엄중한 행위의 무게와 함께 서지 않는다면, ‘연민’과 ‘동정’의 차이는 과연 무얼까? 이에 손택은 이미지를 매개로 형성된 ‘보는 자’와 ‘보여지는 자’의 위계를 지적하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부당하게 향유하는 자들이 사실상 고통을 가저온 원인에 자신이 밀접하게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숙고하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연민 베풀기를 더는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끌어안는 존재 방식으로서의 ‘연민’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1900)의 생각을 빌자면, 아마도 우리는 연민이라 쓰고 수치심이라 읽어야 할 것이다. 니체는 수치심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역량이 자기 안에 있음을 알며, 그 역량을 미처 사용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라 했다. 타인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그 앞에 수치심을 가져야 한다는 니체. 고통 받는 자들의 고통에 내가 연루되어 있음을 숙고하고 행동하라는 손택. 이들이 말하는 바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책임성을 자각하고 나아가 이미 우리 안에 잠재된 역량을 발휘하여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까지 밀고 나아가라는 것이 아닐까?

고통 받는 육체를 보여주는 이미지의 과잉이 우리를 둔감하게 한다는 손택의 비판은 사진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끊임없이 이미지를 양산하여 소비를 자극하고 우리의 의식을 몰화시키는 자본 사회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그러한 시스템 속에 저항 없이 스며들어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과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자기 기만적인 연민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그렇다면 앞서 손택이 던졌던 질문, 이런 상황에서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1915-1980)는 《카메라 루시다》에서 사진이 가져다주는 체험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스튜디오(studium)’과 ‘푼크툼(punctum)’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한 바 있다. 바르트에 따르면 스튜디오는 사회적으로 개념화된 전형적인 정보들로 프레임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어떤 것이며, 푼크툼은 사건 현장을 떠나 마치 화살처럼, 보는 이의 가슴을 찌르는 어떤 충격, 아픔, 상처로서 프레임 바깥에서 활보하는 우연적인 것들이다. 여기서 푼크툼은 단순한 사회적 코드가 주는 일상성을 깨는 충격과 함께 찰나의 번개 같은 영감을 통해 개인적인 울림과 감동을 선사하는데, 바르트는 바로 이 푼크툼을 통해 사진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게 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바르트는 사진이 드러내는 전형적인 정보가 아닌 흑인 여성의 끈 달린 구식 구두, 어린 소년의 썩은 이빨, 수많은 발길로 다져진 도로, 소녀의 손가락에 감긴 봉대 등 다른 이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대상들에서 연민에 가까운 감동을 느끼고, 감춰진 시야가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도록 만든다.

5년 전 터키 해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세 살배기 시리아 난민 아이란 쿠르디의 사진이 오늘날 시리아 난민에 대한 유럽의 빗장을 여는 계기가 된 바 있다. 이처럼 보는 이의 가슴을 찌르는 푼크툼은 프레임 밖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쿠르디의 사진에서 많은 이들이 마주한 푼크툼은 처참하기보다 오히려 너무도 고평하게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고통을 가져온 원인에 연루되어
있지는 않다고 느끼는 것이다.
우리가 보여주는 연민은
우리의 무능력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고함도 증명해주는 셈이다. 따라서
연민은 어느 정도 뻔뻔한 반응일지도 모른다.
특권을 누리는 우리와 고통을 받는
그들이 똑같은 지도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의 특권이 그들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숙고해보는 것,
그래서 전쟁과 악랄한 정치에 둘러싸인 채
타인에게 연민만을 베풀기를 그만둔다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과제이다.

-《타인의 고통》 중에서

잠들어 있는 듯한 아이의 다소곳한 포즈와 그 뒤로 펼쳐지는 감춰진 시야, 그러니까 까르르 웃으며 들판을 평화롭게 뛰어다니는 아이의 맑은 미소가 아니었을까. 사진을 액면 그대로만 읽는다면, 프레임 속에서 놓치기 쉬운 작은 정보들을 통해 오는 짜름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연에만 맡겨야 할 것이다. ‘짜름’과 ‘아픔’은 보는 이가 지니고 있는 ‘사진을 읽어내는 힘’과 관련된다. 그런 의미에서 푼크툼은 ‘보여지는 자’에 대한 ‘보는 자’의 연민과 수치심에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미지 중독에서 깨어나 프레임 바깥의 서사를 읽어내고, 실제적 진실에 가까이 다가서려는 움직임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미지의 세계 속에서 전도된 사회적 관계, 인간이 잃어버린 상징과 초월을 회복하여 부유물처럼 떠다니는 수많은 ‘스튜디오’ 속에서도 통절하지만 반짝이는 ‘푼크툼’을 포착해낼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짜름과 아픔을 자양분 삼아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연민을 끝까지 밀고 간 그 자리에 비로소 ‘정의’가 우뚝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소식

[Information]에서는 각 평화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서로 공유하고 싶은 정보나 초대를 원하는 행사 등을 널리 알려드립니다. 행사 안내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참여를 기다리는 일, 혹은 필요로 하는 어떤 자원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단체나 개인이 이미 진행했던 활동이나 경험이라도 다시금 알고 싶은 점들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는 것도 서로의 배움과 성장 그리고 연결에 큰 기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창간호에도 몇몇 곳에서 소식을 전하고자 문의를 주셨습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 행사 취소는 물론 확실한 일정을 공지하지 못하는 어려움들로 인해 유보를 결정하였습니다. 협력과 네트워크를 위해 관심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호에 알리고픈 정보와 소식들을
저희 대표 메일주소 pjiplanp@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함께 나눕시다!

INFORMATION

평화저널 플랜P 창간 포럼

수요일
2020.7.29
오후 2시~5시
온라인에서 만나요!

평화단체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상호 협력과, 평화의 방식으로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탄생한 <평화저널 플랜P>에서 '코로나 시대의 평화교육 활동의 전망과 역할 모색'을 주제로 첫번째 포럼을 진행합니다. 온라인(ZOOM) 동시 접속을 통해 함께하고픈 분들을 초대합니다.

패널 소개

박성용(비폭력평화물결) / 박숙영(좋은교사 회복적생활교육센터) / 서정기(에듀피스)
전세현(피스모모) / 정용진(한국평화교육훈련원)

신청 방법

[이름/소속/연락처]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시면, 접속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010-7330-0316 : 평화저널 플랜P 편집장, 이은주)

* 위에 예시된 웹 포스터 형태나 텍스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20년 가을, 〈평화저널 플랜P〉가 알립니다

1. 협력 단체 및 개인으로 등록해주세요.

평화의 가치를 위해 실천하고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 분들을 '협력 파트너'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월 1회 일정 금액을 약정해주시고, 각종 부문에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통해 협력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거래 은행을 방문하셔서 자동 출금을 가입해주세요. KEB하나은행 181-910018-32105 김복기(평화저널)

2. 단회 구입 또는 정기 구독해주세요.

〈평화저널 플랜P〉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독 신청 가능합니다.
1권당 12,000원 / 1년 45,000원 (6% 할인) / 2년 87,000원 (9% 할인)
홈페이지 www.peacejournal.co.kr 에 방문하시면 곧바로 구입 및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는 이메일 pjplanp@gmail.com 으로 '이름/주소/전화번호/신청 부수'를 적어주시면
구입하실 수 있도록 연락 드리겠습니다.

3. 매호 광고 및 소식 정보를 실어드립니다.

잡지 뒷부분에 1페이지 전면 혹은 1/2페이지로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Information] 꼭지에 기관에서 소개하고 싶은 소식이나 행사 정보를 담아드립니다.
이메일 pjplanp@gmail.com 전화 010-7330-0316 (이은주)

4. '바로잡을 것' 또는 전하고픈 말씀을 주시거나,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후기 또는 [Learning], [Culture], [Voice] 꼭지에 글을 보내주세요.

5. 이슈와 인터뷰 취재, 사진 촬영, 편집 등의 활동을 자원해주세요.

일회만 활동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함께 즐겁게 작업에 참여해보고 싶은 분들을 환영합니다.

6. 다음 호는 2020년 12월에 키워드 'Pause'로 찾아뵙겠습니다.

특집을 준비하며 10월에도 어김없이 포럼을 열고자 합니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NOTICE

스위스에서 프로젝트 “평화저널 플랜P”의 창간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네트워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서로를 격려합니다.

—— 브루노 & 하이디 자게씨
평화운동가, 스위스대체복무제 입안자, 유럽 Church and Peace 회장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미디어 속에서 평화저널 플랜P의 창간이 반갑고 기대가 됩니다. 평화저널 플랜P를 통해 한국에도 평화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이 더욱 자라나 한국이 동북아 평화의 중심이 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 개척자들

축하합니다. 언론이 가장 비난받고 있는 이 시기에 평화저널이 나오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신나고 기대되는 사건이네요.

—— 박성용 비폭력평화물결 대표

평화저널 플랜P 기대됩니다. 평화단체들의 협력과 경험 나눔을 통해 서로 격려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 카야 “카레” 뷔레이디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강정평화 네트워크

〈평화저널 플랜P〉, 이름도 멋지고 기획도 멋지고 만드는 분들도 멋진, 이 저널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평화학 저널입니다. 열리지 않았던 길을 열어주어서 감사드립니다. 평화 실천가들의 성찰과 만남의 장이 되리라 기대가 큼니다.

—— 이대훈 성공회대 평화학 연구교수

플랜P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평화의 힘을 찾아 연결하는 큰 그릇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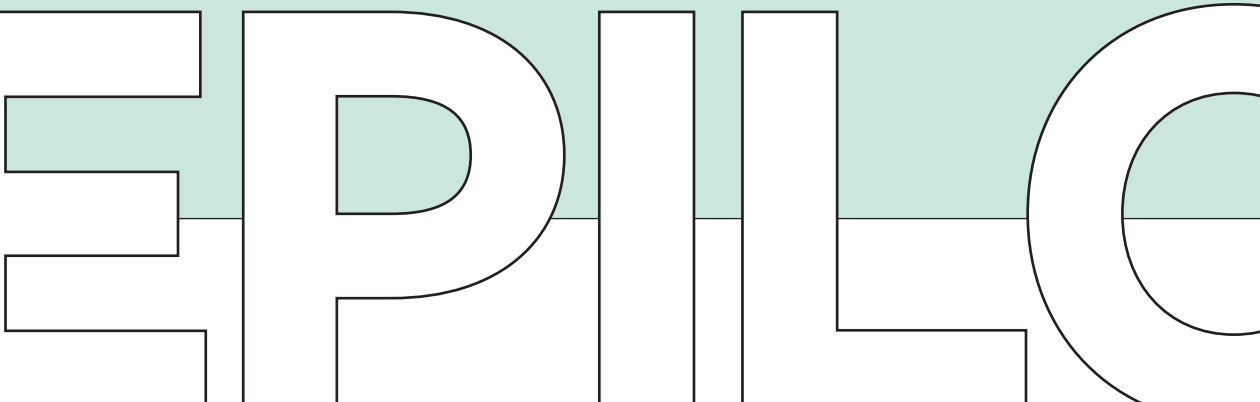
—— 서정기 에듀피스 대표

평화저널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평화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고 실존적이다! 평화저널이 평화를 담는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 김병철 중국인민대학교 사회보장학과

평화저널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평화의 현장을 일궈온 분들이 만드는 계간지라 기대가 큼니다. 1990년대 초 창간된 ‘녹색평론’은 많은 이들의 삶의 방식을 생태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2020년 창간하는 ‘평화저널 플랜P’는 전쟁과 분단의 상처로 아직도 고통 받는 한반도의 주민들이 기꺼이 비폭력 평화주의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끄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개인 간
그리고 집단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시대에
꼭 필요한 '평화저널'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한승권 전인고등학교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제주 강정마을에 살면서 평화의
절실함을 매일 느끼게 됩니다.
그 절실함이 더 많은 한국 사회
시민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데요.
평화저널 플랜P를 통해서
강정마을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과 현장의
이야기가 소개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호수, 제주 평화활동가

평화저널 플랜P 창간을 축하드려요.
앞으로 PLUS(더하기)의
PEACE(평화)를 만들어 가는
멋진 플랫폼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 전세현 피스모모 사무국장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내딛는 첫걸음을
축하합니다. 평화적 공존이 절실한
시대에 우리 사회 전체, 그리고 세상의
곳곳을 평화의 비전으로 연결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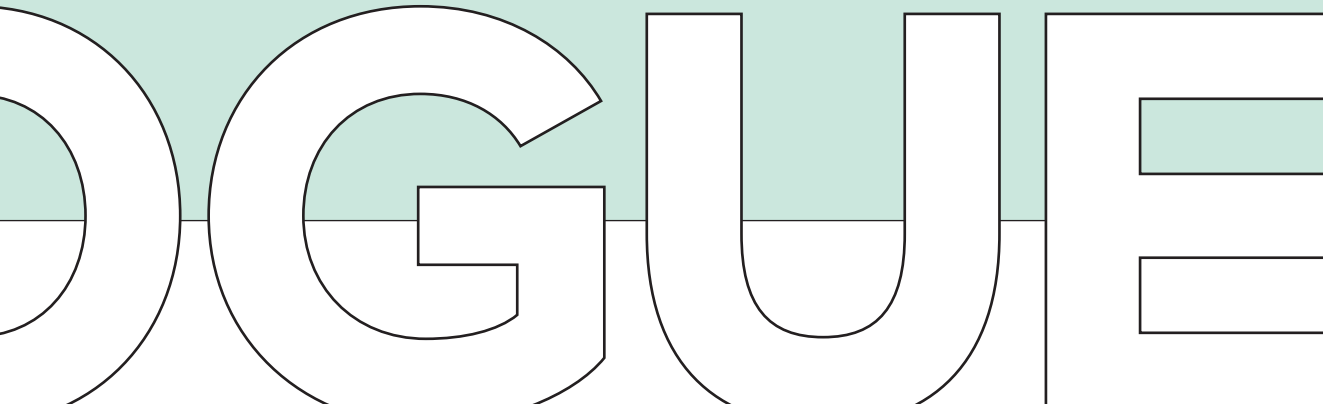
—— 정주진 평화갈등연구소

'평화'의 외침은 언제나
부족한데 우리 사회에 큰
목소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정용진 KOPI
회복적정의연구소 소장

평화는 사랑이다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플랜 P
평화저널

한승권 평안민아카데미 수장,
캘리그라퍼





창간호 준비와 제작까지 긴 여정을 함께한 편집위원들입니다.
 몇 분의 소감을 신습니다. 이분들 외에 김복기, 김상덕, 박숙영 님이
 같이 애써주셨습니다. 지면을 빌려 감사를 전합니다.

김가연

'평화저널'이 '플랜P'가 되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네, 당연히
 제가 함께해야죠."라는 다소 오만한
 대답만큼 플랜P에 많은 조각을
 보냈는지는 의문입니다. 생활에 치여
 편집팀에 손가락 하나 간신히 걸치고
 졸졸 따라다니다 보니 어느새 창간호의
 그림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모임의 알싸한 어색함이 능글맞은
 친근함으로 바뀌었으니, 이제 우리는
 팀인가 봅니다. 평화저널 플랜P의
 시작을 자축하며, 잡지와 제가 함께
 성장하는 욕심 가득한 미래를 꿈꿉니다.
 '플랜P'의 주제 키워드가 바닥이 날
 때까지!

김유승

평화저널 플랜P를 통해 평화 그
 자체인 귀한 분들과 인연을 맺고
 함께해 온 시간들 또한 평화였습니다.
 저널의 이름처럼 평화가 우리의 삶과
 세계의 크고 작은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의 과정이자 궁극적 지향이
 되기를, 더불어 저널 플랜P가 평화의
 이야기들이 모이고 다시 퍼져가는
 소담한 정거장이자 평화를 일구는 작은
 텃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간호가
 나오기까지 수고해주신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김수연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기서 8장)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내가 늘 마음에 품는
 말씀이다. 다짐처럼...!

김성한

일이 원안대로 되지 않을 때 대안을
 가리키는 플랜B. 알파벳 B와 P사이에는
 13개의 알파벳이 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세상, 다양한 상상과
 미래에 대한 담대한 낙관이 의미를
 부여하고 길을 바꾸리라. 그래서 난,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말할 날을
 기다리면서 플랜P를 택하겠다.

2019년 5월 17일 첫 논의 때부터 창간호가 나오기까지 준비 모임에 한번이라도
 함께해주셨던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힘을 보태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현주(NVC 강사), 고재근(한국갈등전환센터), 류복희(개척자들), 박성일(한국비폭력대화센터),
 송강호(개척자들), 현승민(한국회복적정의협회)

창간호 출간 전에 협력 단체 및 개인으로 등록해주신 분들입니다. 다음 호에도 새로 협력해주시는 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기독교환경교육센터, 대장간출판사, 비폭력평화물결, 오달콤제주, 에듀피스, 피스모모, 한국회복적정의협회, 한국NVC센터.
 김영범, 김웅기, 김정민, 박희식, 염승탁, 오은영, 이미경, 이예지, 이현호, 최미숙, 황수진, 원충현.



66 협동조합 회복적정의 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는

갈등과 폭력으로 인한 개인과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고 돌봄을 실천하는
연구와 교육, 컨설팅 전문기관입니다.

에듀피스는 교육과 상담,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들이 회복적정의의 철학에 기초하여
평화교육과 갈등해결 및 갈등조정(대화모임)을 통해 평화롭고 안전한 가정과 학교,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협동조합**이자 **사회적기업**입니다. 99

- 1 교육훈련** 평화로운 학교와 마을공동체를 세우는 회복적정의의 실천가를 양성합니다.
- 2 교구개발** 누구나 회복적정의를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전문교구를 개발합니다.
- 3 갈등조정** 공동체의 피해와 관계를 회복하고 성장과 변화를 만드는 대화모임을 지원합니다.
- 4 치유와 돌봄** 상처받은 개인과 공동체의 치유와 돌봄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만듭니다.
- 5 연구활동** 한국에서의 회복적정의를 연구하며 실천과 적용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갑니다.

★ 제주 평화를 꿈꾸는 매장 ★



오달콤제주

달콤한 제주를 담다

제주특산물, 과일(감귤, 황금향, 천혜향, 레드향),
각종 선물세트, 향수&디퓨저,
제주의 감성을 담은 기념품 등 제주와 관련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이다.
제주의 자연과 환경을 위해 커피 찌꺼기로 만든
돌하르방이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인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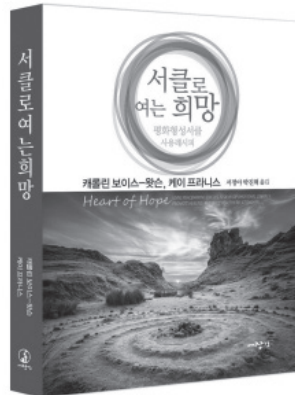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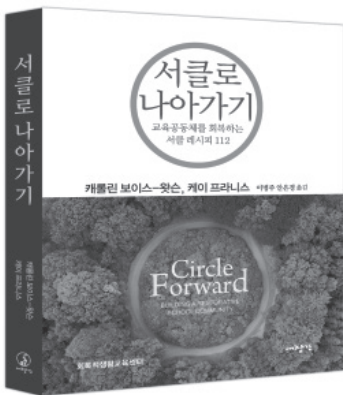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340 T.064-796-3040

네이버에서 **오달콤제주** 를 검색하세요.

도서출판 대장간은 평화가 예수께서 이땅에 오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와 공의, 평화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영역에 머물지 않고,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실현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기획하여 정의와 평화가 세워지는 것이며, 막연한 바람과 내면의 평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개념과 방법, 실질적인 노력을 통해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정의와 평화를 관념과 내면의 것으로 오독하거나 오용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 관련 도서

- ▷ 어린이 평화교육 시리즈 4권
- ▷ 당신의 빛을 비추소서
- ▷ 평화의 바람이 분다
- ▷ 그림에도 불구하고, 평화
- ▷ 비폭력 평화주의 역사
- ▷ 선포된 평화
- ▷ 그리스도와 폭력
- ▷ 평화가 아이들에게 말하다
- ▷ 전쟁, 평화, 무저항
- ▷ 정의와 비폭력으로 여는 평화
- ▷ 정의를 강물처럼
- ▷ 평화의 발걸음

정의와 평화 실천 시리즈

- ▷ 학교 현장을 위한 회복적 학생생활교육
- ▷ 서클 프로세스
- ▷ 갈등 전환
- ▷ 트라우마의 이해와 치유
- ▷ 피해자 가해자 대화모임
- ▷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의 이념과 실천
- ▷ 전략적 평화 세우기
- ▷ 공동체를 세우는 대화기술
- ▷ 건강한 조직 만들기
- ▷ 성서는 정의로운가
- ▷ 가족 집단 컨퍼런스
- ▷ 대학에서의 회복적 정의
- ▷ 교도소에서의 회복적 사법
- ▷ 회복적 교육
- ▷ 성학대와 회복적 정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고 싶은 가족을 위한



가족서클 FAMILY-CIRCLE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가족,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많은 것을 공유하고 서로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 속 이야기를 꺼내놓기 어렵고, 그러다보면 어느새 진심어린 대화가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지진 않나요? 다양한 가족모임에서 둘러앉아 '가족서클'을 해보세요. 서로를 이해하고, 각자의 진심이 들려지고, 오해가 풀리는 시간을 경험하실 거예요. 다친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좋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가족서클! 서클을 처음 시도하는 가족이나, 가족모임에서 대화를 잘 진행하고 싶은 가족을 위해 가족서클 키트(kit)를 소개합니다.

가족서클은 누구와 할까요?

부부끼리 사는 가족 / 엄마와 딸 둘로 구성된 가족 / 할머니와 아빠, 아들 셋이 사는 가족 / 삼촌과 고모를 포함해서 5~6명 이상이 함께 사는 가족 / 아주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있지만, 두명 이상의 가족 구성원 누구와도 할 수 있어요. 꼭 가족 모두가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옆에서 가족서클을 구경하다보면 어느새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 하면서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될테니까요.

가족서클 KIT 구성 구입안내

구성품

- 원형박스
- 질문카드
- 토키피스
- 종
- 소책자

가족서클 1세트 : 25,000원 (배송비 : 3000원 / 3세트이상 구입시 무료배송)

* 10세트이상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 문의 바랍니다.
소소하지만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작은 혜택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입방법 : QR코드로 신청 후 입금. (신한은행, 110-459-809730, 박성용)

배송안내 : 주 1회 발송 (화-일 신청. 입금확인 건을 월요일 주1회 발송하고 있어요)
(문의 전화) 02-312-1678 / (문자문의) 010-5769-3439



메이커소개

저희는 비폭력평화물결입니다. 국제평화단체인 NONVIOLENT PEACEFORCE INTERNATIONAL (NPI)의 한국 지역 모임으로, 한국사회에 평화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서클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모델을 연구하고 실천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평화를 만들고, 갈등을 예방하거나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로 나아가는 과정을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 시민사회, 마을, 경찰, 지방단체 등과 협력하고 있어요.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세상이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전혀 바뀔 것 같지 않던
정오의 햇빛이 이때가 되서는 모두 변한다. 노을의 원인이 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해조차도 이 시간엔 새로운 빛으로 물든다.

서로가 서로에 의해 어느 것 하나 없이 변화하는 시간.
사물 자체가 의미를 잃고 관계만이 존재의 의미란 사실을 깨닫게 한다.
관계가 가져다주는 변화의 충만함 때문에 기울어 가는 해임에도
노을은 아름답다.

평화란 전쟁과 무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
관계의 발전에 의해서 온다는 사실을 노을과 함께
느껴보는 것도 좋은 일일 듯싶다.

₩12,000

